

ART BUSAN MONTHLY

예술부산

2025·6 VOL.240



우수콘텐츠잡지
2023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제14회 부산 청소년 음악제

부산예술회관 기획

이그나이트 : IGNITE

2025. 7. 5.(토)-7. 6.(일) 오후 2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2025
youth
festival

경연 시상내역

대상 (1팀) 300만원

금상 (2팀) 200만원

은상 (3팀) 100만원

동상 (6팀) 50만원

참가상 (10팀) 30만원

주최 부산예술회관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후원 부산일보사



국제신문



KBS 부산방송총국

부산MBC

부산KNN

특별후원 BNK 부산은행



2025 제14회 젊음의 축제 <이그나이트 : IGNITE>

올 7월 청년들을 위한 예술경연대회가 펼쳐집니다! 2025 젊음의 축제에 참여하여 뜨거운 열정과 활기찬 에너지로 부산예술회관을 가득메울 영광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경연대회 **참가팀** 을 모집합니다!

경연일자

2025년 7월 5일(토), 7월 6일(일) 오후 2시

※ 경연소요시간은 상황에 따라 추후 변경가능성 있음

경연장소

부산예술회관 1층 공연장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 부산예술회관)

경연종목

국악, 무용, 연극, 연예, 음악 등 기타 장르

참가자격

부산시내 대학생 및 청년, 예술단체 등
(만19세~39세)

경연순서

자체편성 (7월 3일(목) 홈페이지 공지)

신청문의

051)631-1377 (참가신청서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부산예술회관 홈페이지 <http://www.bsart.or.kr>

시상내역

	상장 및 상금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장상>
대상 (1팀/명)	3,000,000원
금상 (2팀/명)	2,000,000원
은상 (3팀/명)	1,000,000원
동상 (6팀/명)	500,000원
참가상 (10팀/명)	300,000원

신청기간

2025년 6월 2일(월)~6월 22일(일) 18시까지

* 접수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또는 추가접수가 진행될 수 있음.

신청방법

- ① e-mail 접수 : artbusan@hanmail.net
- ② 참가신청서
- ③ 단체일 경우 참가자 명단 1부
- ④ 활동사진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경연대회공모요강 확인

2025년 3월 - 11월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 전시장

3. 5. (수) 국악퍼포머 초청 [UP이아 청청]
3. 26. (수) 출판 배김새 [2025 을사년 출판 배김새 새물맞이 출판]
4. 9. (수) NS Band [시민을 위한 예술의 향연! 특별한 밤!]
4. 30. (수) 오페리움 한울 [장미꽃 가시 '카르멘']
6. 11. (수) 부산시민윈드오케스트라 [감성 더한 즐거운 음악회]
6. 16. (월) ~ 6. 22. (일) 시선회 [꿈은 이루어진다]
6. 25. (수) 부산아이디발레단 [Essential]
6. 30. (월) ~ 7. 6. (일) 부산공예예술문화협회 [BE CRAFT!]
7. 28. (월) ~ 8. 3. (일) 홍민수 도예전 [법고창신]
7. 30. (수) 아티클래식 [아티클래식 미니 콘서트]
8. 25. (월) ~ 8. 31. (일) 부산남사하 포토클럽 [부산 사계의 미학]
8. 27. (수) 극단 우릿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는 뮤지컬쇼 '전화We북']
9. 8. (월) ~ 9. 14. (일) 부산문인협회 [시화전]
9. 22. (월) ~ 9. 28. (일) 진사우회 [진사우회 마흔일곱번째 회원전]
9. 24. (수) 드 콤마 [배달의 콤마 '추억의 음악을 신속 배달']
10. 29. (수) 영포레컴퍼니 [피노키오와 함께 음악 속으로~!]
11. 26. (수) 이바디예술단 [문화의 교차로에 선 '술가락 젓가락']

JUNE

6

공연장 / 전시장 / 회의실 / 예술아카데미 / 야외광장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갈매랑 축제 최혜민 개인전(4층전시장) 010-4580-3344 김미현 개인전(3층전시장) 010-5218-0087	2 웰빙댄스(4층연습실) 10시~12시	3 김정현의 팡팡노래교실 13시30분~15시30분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4층연습실) 10시~12시	4 점심버스킹 (야간)부산사진작가협회 간사회 051)631-4111 가아금(2층 연습실) 10시30분~12시 아랑고창구&가곡교실 (2층연습실) 12시~17시 방송댄스(4층연습실) 10시~12시	5 극단누리에 시어터링크사업 <뮤지컬 줄없는 나무인형> 051)621-3573, 19시30분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4층연습실) 10시~12시 한국무용 교실 (4층연습실) 14시~17시50분 (오전)사진아카데미 10시~11시50분 (야간)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6 극단누리에 시어터링크사업 <뮤지컬 줄없는 나무인형> 051)621-3573, 14시	7 캘리포리아카데미 제10회 부산국제폴츠편인십 010-7339-9013, 13시
8 캘리포리아카데미 제10회 부산국제폴츠편인십 010-7339-9013, 11시	9 웰빙댄스 (4층연습실) 10시~12시	10 부산사진작가협회 제36회 부산사진대전 접수 (3층전시장) 051)631-4111 김정현의 팡팡노래교실 13시30분~15시30분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4층연습실) 10시~12시	11 점심버스킹 문화가 있는 날 부산시민합동오케스트라 <감성 디한 즐거운 음악회> 051)631-1377, 19시 가아금(2층 연습실) 10시30분~12시 아랑고창구&가곡교실 (2층연습실) 12시~17시 방송댄스(4층연습실) 10시~12시	12 부산사진작가협회 제36회 부산사진대전 심사 051)631-4111, 13시30분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4층연습실) 10시~12시 한국무용 교실(4층연습실) 14시~17시50분 (오전)사진아카데미 10시~11시50분 (야간)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13 한영숙제 이매주류 주연회 춤 -완판승무 010-3526-1492, 19시	14 한국향토가수후원회 내고향 천국가요제 051)949-2468, 15시
15 한국향토가수후원회 내고향 천국가요제 051)949-2468, 15시	16 문화가 있는 날 시선화(꿈은 이루어 진다) (3층, 4층전시장) 051)631-1377 웰빙댄스(4층연습실) 10시~12시	17 문화가 있는 날 시선화(꿈은 이루어 진다) (3층, 4층전시장) 051)631-1377 김정현의 팡팡노래교실 13시30분~15시30분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4층연습실) 10시~12시	18 점심버스킹(우천시 25일) 문화가 있는 날 시선화(꿈은 이루어 진다) (3층, 4층전시장) 051)631-1377 가아금(2층 연습실) 10시30분~12시 아랑고창구&가곡교실 (2층연습실) 12시~17시 방송댄스(4층연습실) 10시~12시	19 문화가 있는 날 시선화(꿈은 이루어 진다) (3층, 4층전시장) 051)631-1377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4층연습실) 10시~12시 한국무용 교실(4층연습실) 14시~17시50분 (오전)사진아카데미 10시~11시50분 (야간)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20 문화가 있는 날 시선화(꿈은 이루어 진다) (3층, 4층전시장) 051)631-1377 부산문인협회 제2차 이사회, 시민문예강좌 051)632-5888, 13시	21 부산음악협회 제52회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051)634-1295, 09시 문화가 있는 날 시선화(꿈은 이루어 진다) (3층, 4층전시장) 051)631-1377 부산음악협회 제52회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051)634-1295, 13시
22 남부권부흥동아리 제1회 남부동 010-2852-3715, 13시 문화가 있는 날 시선화(꿈은 이루어 진다) (3층, 4층전시장) 051)631-1377	22 김태희 개인전 네일로그리는이야기 (3층전시장) 010-4542-5322 웰빙댄스(4층연습실) 10시~12시	23 김태희 개인전 네일로그리는이야기 (3층전시장) 010-4542-5322 김정현의 팡팡노래교실 13시30분~15시30분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4층연습실) 10시~12시	24 문화가 있는 날 부산아이디 발레 단 (Essential) 051)631-1377, 19시 김태희 개인전 네일로그리는이야기 (3층전시장) 010-4542-5322 가아금(2층 연습실) 10시30분~12시 아랑고창구&가곡교실 (2층연습실) 12시~17시 방송댄스(4층연습실) 10시~12시	25 부산문인협회 제14회 부산국제문학제 051)632-5888, 10시 김태희 개인전 네일로그리는이야기(3층전시장) 010-4542-5322 댄스스포츠 및 라인댄스 (4층연습실) 10시~12시 한국무용 교실(4층연습실) 14시~17시50분 (오전)사진아카데미 10시~11시50분 (야간)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	26 부산문인협회 제14회 부산국제문학제 051)632-5888, 10시 김태희 개인전 네일로그리는이야기 (3층전시장) 010-4542-5322	27 부산음악협회 제52회 전국학생음악경연대회 051)634-1295, 09시 김태희 개인전 네일로그리는이야기 (3층전시장) 010-4542-5322
28 부산연예예술인협회 차성연노래부르기 대회 및 신곡발표회 051)646-7343, 15시 김태희 개인전 네일로그리는이야기 (3층전시장) 010-4542-5322	29 문화가 있는 날 부산공예예술문학협회 <BE CRAFT> (3층, 4층전시장) 051)631-1377 웰빙댄스(4층연습실) 10시~12시	30				



ART BUSAN MONTHLY VOL.240

2025 JUNE 6

CONTENTS

권두칼럼

08 어린이가 예술로 행복한 세상 _ 강동석

예서제서

- 10 BNK금융그룹, 부산예총에 문화예술 발전기금 전달
- 11 부산예총 2025년 제3차 이사회 및 워크숍 개최
- 12 제39회 부산청소년예술제
청소년건축상상마당
부산청소년무용예술제
학생사진공모전
부산청소년세계차문화예술제
- 20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 오페리움 한울 <장미꽃 가시, 카르멘>
- 21 2025 걷다가 만나는 버스킹 - 미르소리·헤르츠앙상블
- 22 제49회 부산동래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
- 23 한국서각협회 부산지회전
- 24 2025 BFAA국제아트페어
- 25 제45회 부산미술제
- 26 부산 최초 클래식 전용 공연장 - 부산콘서트홀 개관
- 28 루프 랩 부산Loop Lab Busan



표지 _ 김온경

·부산시무형유산 제10호 동래고무 보유자
·대한무용협회 부산광역시지회 고문
·(사)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이사장 역임
·신라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역임
·부산·경남 문화유산위원 역임



30 부산사진작가협회 초청 작가 특강

32 제43회 부산연극제

- 시민평론 아카데미 우수작II _ 하채원

포토에세이

34 카메라로 그린 그림 _ 한미숙

時雨일기

38 개, 쫄이 _ 문경희

인물포커스

42 무용수 황세민 _ 박준영

예인탐방

44 시인 고승호 _ 정혜주

예술가열전 233

46 영설쵸를 서상환 화백 _ 백근영

손으로 쓴 문학

50 소리광대 _ 김순경

들어다보기

52 문화/ 동해안별신굿 _ 김신호

56 미술/ 부산현대미술관 '초록 전율' _ 백근영

60 건축/ 부산의 도심 파편화와 통합성 _ 신병윤

66 음악/ 2025 부산음악대축제 <실내악의 밤> _ 정혜주

기획연재

68 건축과 서예XII

- 붓으로 새긴 충절의 기록 임진동래의충과 한형석 _ 이현주

72 대한민국 최고의 도심공원, '부산시민공원'의 가치에 주목한다 _ 심수화

76 예총-전시-공연 뉴스

79 신간 안내

80 메세나 광장 & 정기구독회원 모집

2025년 6월 통권 240 <http://www.artpusan.or.kr>

1997년 10월 15일 정기간행물 등록(2011년 8월 31일 변경등록번호 부산 라-01255)

발행일_ 2025년 5월 23일 발행처_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소_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 부산예술회관

전화_ 051)612-1372 팩스_ 051)631-1378 이메일_ artbusan1997@naver.com

발행인 겸 편집인_ 오수연 편집고문_ 김두진(건축가회), 강명욱(국악협회), 남선주(무용협회), 박혜숙(문인협회), 최장락(미술협회), 강종관(사진작가협회),

이정남(연극협회), 안규성(연예예술인협회), 권성은(음악협회)

편집기자_ 박준영, 정혜주 객원기자_ 백근영 디자인_ 두손컴 제호_ 김종문

※ 본지는 부산광역시로부터 발간비 지원을 받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부산예총의 의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예술로 행복한 세상

글 _ 강동석 동진기공 회장

우리는 모두 어린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 시절은 호기심과 상상력으로 가득 차 있었고, 무엇보다 '행복'이 자연스러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행복'을 의식하고 쫓아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른이 되면 웃음이 넘쳐흘렀던 어린 시절의 순수한 행복과 자유로운 상상력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심각한 인구 소멸 단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고령 인구의 비중이 40%가 넘어서게 됩니다. 낮은 출산율이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인구감소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부산 지역에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마련되어야 하고, 출생률 제고와 청년 유출 방지, 고령 가구 삶의 질 향상 등 모든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반면,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4 한국 아동의 삶의 질' 연구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아동의 삶의 질이 가장 높은 도시로 부산이 선정되었습니다. 부산시는 2019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획득했으며, '아동이 행복한 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4대 분야 64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 전역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을 조성하고,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와 어린이집 필요 경비 부담을 낮추고, 특·광역시 최초 6~12세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등 아동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애지중지 키우듯, ‘온 부산’이 ‘온종일’ ‘온 마음’을 다해 아이를 애지중지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표현하며,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술’이 있습니다. 예술은 단순한 그림 그리기나 노래 부르기를 넘어 아이들의 내면을 표현하고, 감정을 이해하며,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어린이가 예술 활동에 참여할 때, 그들은 자유롭게 상상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이는 자존감과 창의성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이 예술을 통해 행복을 느끼려면, 가정과 학교, 지역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시험과 점수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미술, 음악, 연극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정규 교육과정에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지역사회도 아이들이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공간과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부산예총에서 매년 개최하는 ‘부산청소년예술제’는 청소년들이 주축이 되어 예술적 경험과 재능을 마음껏 선보이는 좋은 사례입니다.

어린 시절 예술 경험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평생의 행복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예술을 통해 감수성과 공감 능력을 키운 아이들은 타인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법을 배우며, 더 창의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어른으로 자랍니다.

1975년 베네수엘라에서는 ‘엘 시스테마’El Sistema¹라는 대규모 음악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었습니다. ‘음악은 사회적 권리다. 악기를 든 손은 총을 들지 않는다’라는 슬로건 아래, 주로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악기 연주를 가르쳐서 마약, 폭력, 범죄 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음악을 통한 사회혁명운동이라 불릴 만큼 성공적이었던 ‘엘 시스테마’ 음악교육은 이후 다른 나라에서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엘 시스테마를 모델로 한 ‘Sistema USA’, 스코틀랜드에서는 ‘Big Noise’, 콜롬비아에서는 ‘Batuta Foundation’을 개발해 음악을 통해 평화교육, 팀워크, 책임감을 가르쳤습니다.

한국의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도 엘 시스테마를 모델로 하여 11곳의 복지관과 지역본부, 마을에서 9개 초록우산 ‘드림오케스트라’와 4개 초록우산 ‘드림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쉽게 방문하여 쉴 수 있고, 친구를 만나고 어울릴 수 있는 ‘우리 동네 음악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아동 행복’을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닌 국가 생존과 지속가능성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며, 어린이날 성명서 등을 통해 온라인 세이프티(디지털 공간 내 아동 보호), 이주배경아동 지원, 기부 세제 현실화 등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아동 중심 정책 수립을, 기업에는 아동 보호 노력, 국민에게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응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록우산의 아동 행복 실현을 위한 노력에 동진기공도 부산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아동 보호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예술로 행복한 세상은 모두가 꿈꾸는 이상향입니다.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예술적 성장을 적극 지원할 때, 그들은 더 밝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늘도 아이들의 작은 손끝에서 피어나는 예술의 꽃을 응원합니다.



BNK금융그룹, 부산예총에 문화예술 발전기금 전달

2025. 4. 25. 부산은행 본점

부산예총(회장 오수연)과 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은 지난 4월 25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문화예술 발전기금 전달식을 시행했다. 이는 지역 문화예술계의 안정적 성장과 창작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BNK금융그룹은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부산예총에 1억 원을 전달했다. 2012년부터 13년간 후원을 이어온 BNK금융그룹의 누적 후원금 규모는 총 12억 원에 달한다.

전달식에는 부산예총 오수연 회장을 비롯한 김인숙 수석 부회장과 권성은(부산음악협회 회장) 부회장이 참석했다. 부산예총은 11개 지역 예술 협회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기관으로서, 전달받은 후원금은 2025 부산예총이 주관하는 ‘부산 청소년예술제’, ‘갈매랑축제’, ‘젊음의축제’, ‘부산예술제’ 등

지역 대표 문화예술 행사 개최와 운영에 활용될 예정이다.

BNK금융지주 강종훈 부사장은 “문화예술 발전기금이 지역 예술가들에게 단비처럼 귀중한 자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BNK금융그룹은 지역 예술단체가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오수연 회장은 “부산이 문화예술 도시로 성장하는 데 늘 힘을 보태주시는 BNK금융그룹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기부금은 지역 예술인과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화답했다.

/ 편집실

부산예총 2025년 제3차 이사회 및 워크숍 개최

2025. 4. 23. ~ 24. 대마도

부산예총 2025 제3차 이사회가 4월 23일 오후 6시에 대마도에서 열렸다. 이번 이사회에는 대의원 7명이 참석해 2차 이사회 회의결과와 보고사항에 대한 의결을 진행했다. 2차 이사회 회의결과 의안으로는 ▶부산예술회관 기획 '걷다가 만나는 버스킹, 점심버스킹 IN MADANG' 예산(안) 승인의 건 ▶부산예총 기획 '제39회 부산청소년예술제' 예산(안) 승인의 건 ▶부산예총 기획 '2025 부산예총 갈매랑축제' 예산(안) 승인의 건 ▶부산예술회관 기획 '제14회 젊음의 축제' 예산(안) 승인의 건 ▶부산예총 기획 '제63회 부산예술제' 예산(안) 승인의 건 등이 상정, 통과됐다. 보고사항으로는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정관 개정 승인 보고와 '제39회 부산청소년예술제', '2025 부산예총 갈매랑축제', '제14회 젊음의 축제'의 진행 보고가 이루어졌다. 올해 부산예총 주최로 진행되는 '2025 전국체전 연계 스포츠예술 콘텐츠화 사업' 선정 보고 건에 대해서는 '부산아트빌리지' 관련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 주관 협회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대마도에서 1박 2일로 진행된 워크숍에는 오수연 회장을 비롯해 김인숙 수석부회장, 강종관(부산사진작가협회 회장) 부회장, 조성범 감사, 김두진(부산건축가협회 회장), 강명옥(부산국악협회 회장), 남선주(부산무용협회 회장), 박혜숙(부산문인협회 회장), 김무영(부산연예예술인협회 위원장), 박원일(부산음악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일정으로는 대마도 미우다해변과 조선통신사비를 방문하고 부산을 떠나 일본 대마도로 이동하다 죽임을 당한 조선통신사 108명의 영혼을 기리기 위한 조선역 관사순국비 앞에서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 편집실



제39회
부산청소년
예술제



3

제39회 부산청소년예술제

부산
예술회관은 와글와글

부산
청소년은 예술파밍

2025. 4. 26. ~ 27.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야외광장



4





“공연이 너~~무 재밌어.”

아이들로 가득 메운 공연장 뒷좌석에서 눈을 반짝이며 공연을 관람하던 어느 어린이의 말이다. 푸르고 빛나는 계절, 작은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니고 노래가 울려 퍼지며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비춰 적당한 바람에 아이들의 얼굴이 싱그러워지는 그런 날에 부산예술회관에서는 ‘제39회 부산청소년예술제’가 막을 올렸다.

27일에는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 화려한 개막식이 열렸다. [부산남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은 관람객의 열띤 응원 속에서 예쁜 하모니를 만들었다. 레이저퍼포먼스는 어린이들의 눈을 휘둥그렇게 만들며 레이저로 공간을 장악했고, [드림아이어린이예술단]은 ‘너의 꿈을 응원해!’라는 팻말

을 준비해 서로를 향한 응원을 아낌없이 보냈다. 부산예술고등학교 성악 중창에서는 테너 양승재, 바리톤 주현진 학생이 무대를 훌륭하게 완성하며 예술인으로서의 성숙한 면모를 드러냈다. 청소년과 함께 무대에 오른 [부산STAPS탐댄스]는 흥겨운 리듬으로 모두의 발소리를 경쾌하게 만들었고, [나타라자 브이]의 열정적인 댄스는 미래의 부산예술이 건실함을 증명해 냈다.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 도유민 학생은 18세의 나이를 믿지 못할 만큼 노래와 색소폰 연주를 소화해 내며 완벽한 무대매너로 관객들을 압도했다.

1 부산남구립소년소녀합창단 2 도유민_구덕고등학교
3 테너 양승재_부산예술고등학교 4 드림아이어린이예술단
5 부산STAPS탐댄스 6 나타라자 브이



제39회
부산청소년
예술제

부산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이틀간 진행된 다양한 예술체험프로그램은 부산청소년들의 열정적인 예술파밍으로 선물 같은 체험들이 가득했다. 아이들 손으로 정성스레 완성한 꽃 다발은 엄마의 품으로 전달돼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었고, 각양각색의 페이스페인팅은 오늘의 주인공이 그들임을 알렸다. MBTI로 만든 키링은 다양한 정체성을 드러냈고, 털 철사를 꼬아 꼬아 가며 완성한 모루인형은 가방 끝에 매달려 아이들의 뽀박질에 함께 덩실거렸다. 이렇게 예술적 체험이 차곡차곡 쌓이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마련됐다. 이날 1

1 이벤트 1등 2 뽀박먹기 3 투포던지기 4 꽃다발만들기
5,6 제기차기 7 페이스페인팅 8 투포던지기





4

등을 뺐은 아이는 커다란 선물을 가슴에 안아 카메라를 향해 기쁨의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투포터지기 앞에서 한껏 집중하는 어린이, 땅따먹기 앞에서 돌을 굴려 가며 환하게 웃는 아이들, 제기차기에서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실력을 뽐내며 덩달아 추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부산청소년들이 주축이 되어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열리는 부산청소년예술제는 청소년들이 예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4월 26일을 시작으로 5월 24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는 부산청소년예술제에 얼마나 무궁무진한 끼와 열정을 가진 청소년들이 세상에 드러날지 벌써 기대가 모인다.

/ 편집실



5



6



7



8

제39회
부산청소년
예술제

청소년건축상상마당

2025. 5. 11. 오전 8시 30분 ~ 오후 6시 30분
부산예술회관 공연장·회의실

2025년 5월 11일, 부산예술회관 공연장과 회의실에서 열린 ‘청소년건축상상마당’에는 건축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과 손끝에서 태어난 작지만 담대한 상상이 담긴 건축 모형이 가득했다. 부산건축가회(회장 김두진)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부산의 상징적인 건축물을 상상의 오브제로 다시 태어나게 하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청소년들이 건축에 대해 자유롭게 상상하고 표현하며, 창의적 사고를 실현해 보는 하루였다.

행사는 오전 8시 30분, 오리엔테이션으로 시작해서 박은정 건축가(이공공구공플러스(주))가 전하는 특강으로 이어졌다. 강의는 현실의 건축물과 상상의 경계를 넘나들며, 학생들에게 건축이 단순한 공간 설계가 아니라 ‘사고의 구조화’임을 일깨워주었다. 특강이 끝난 뒤에는 본격적인 모형 제작 워크숍이 열렸다. 자와 칼, 풀, 색지와 보드를 손에 든 학생들은 약 4시간 동안 팀을 이루어 상상한 건축물을 조심스럽게 조립해 나갔다. 처음엔 낯설어하던 손길이 점차 익숙해지면서 눈빛은 점점 진지해졌다. 상징적인 건축물을 자신만의 오브제로 재해석하는 작업은 건축을 예술로 받아들이는 과정 그 자체였다.



오후 4시, 참가자들은 공연장 무대에 올라 직접 만든 모형을 발표했다. 각 팀은 작업 의도와 디자인 요소를 자신 있는 목소리로 설명했고, 발표를 지켜보는 동료들은 박수로 격려했다. 심사는 박은정(이공공구공플러스(주)), 김문성(주)부산종합건축사사무소), 조선애(제이오건축사사무소) 등 세 명의 건축 전문가가 맡았다. 오후 6시에 열린 시상식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상자가 발표됐다. 대상(부산광역시장상)은 양서영(부산국제고등학교)에게 돌아갔고, 최우수상(부산광역시교육감상)은 차세현(부산예술고등학교) 유민석(갈빈매니토바국제학교)이 공동 수상했다. 우수상은 서유리(사직고등학교) 양윤혁(사상고등학교) 최윤진 학생(대교고등학교)에게 각각 수여되었다.

/ 편집실

제39회
부산청소년
예술제

‘춤’을 통한 명랑 무용극

제39회 부산청소년무용예술제

2025. 5. 4. 오후 5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부산무용협회(회장 남선주)가 주관하는 ‘제39회 부산청소년무용예술제’가 올해도 전문 무용수의 꿈을 가진 청소년 예비 무용수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청량감 넘치는 춤의 향연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현대무용 5팀, 발레 4팀, 한국무용 2팀, 실용무용 2팀으로 총 13팀(솔로 포함)이 참가했다. 한국 전통의 미를 계승 및 재해석한 브니엘예술중학교 <김백봉 부채춤>과 부산예술고등학교 <춤의 악동(최현류 입춤)> 한국무용팀은, 한국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한 꽃봉오리 율동과 춤을 계승한 군무와 합으로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완성했다. 광스무용학원 <숨>과 지젤무용아카데미 <Connect One>, 부산예술고등학교 <Collective> 현대무용팀은 현대 사회 일상을 주제로 ‘숨’에 대한 의미와 ‘관계’에 대한 고찰, ‘존재’에 대한 정의를 군무 퍼포먼스로 재현함으로써, 관객에게 사유적 관점을 제시했다. 남성여자고등학교[WAT] <비상(飛翔)>과 브니엘예술고등학교[P:EL] <THIS> 실용무용팀은 청소년 시기의 관심사와 현실적 고민을 재해석한 작품들로 K-POP 안무의 자유로운 표출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고민을 그들의 시각으로 풀어냈다. 탄츠M무용학원 <Hello, Chat GPT>과 코리아주니어발레컴퍼니 <Body Orchestra> 현

대무용, 발레팀은 현시대 속 AI 기술의 이면과 악기의 특징을 몸으로 표현한 점이 재치 있게 다가왔다. 이날 무대에는 전국청소년무용경연대회 고등부 대상자 마준현 <모두의 피가 있으리> 현대무용이 함께해, 독무대 특유의 행위 묘사와 철학적 개념의 안무 구성을 선보였다.

브니엘예술중학교 <‘호두까기 인형’중 꽃의 왈츠>, 부산예술고등학교 <타란텔라>, 브니엘예술고등학교 <지오콘다시간의 춤> 발레팀은 클래식 발레의 고전적 미학을 충실히 재현했고, 극에 맞는 이해도와 적절한 표현으로 감정선의 섬세함과 진지함을 보여줬다. 청소년무용예술제에서 선보인 10대 무용수들의 열정과 매력의 발산은 그 존재만으로도 부산 무용계의 비전을 확인할 좋은 기회가 되었다.

/ 편집실



제39회
부산청소년
예술제



1



2



3

1 고등부최우수 박지연_학교 강당, 그림자 속 우리_부산영상예술고등학교
2 중등부최우수 주인영_우주 여행_경남중학교 3 초등부최우수 장민경_몰래 과자먹기_서천초등학교

학생사진공모전

2025. 5. 7. ~ 10. 부산시민회관 제1전시실

부산사진작가협회(회장 강종관)의 '학생사진공모전'이 5월 7일부터 10일까지 부산시민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렸다. 이번 공모전에는 청소년 292명의 작품 총 1,131점이 출품되어 입상에 15점, 입선에 108점이 최종 선정됐다.

고등부 최우수상은 박지원 학생의 「학교 강당, 그림자 속 우리」에게 돌아갔다. 이 작품은 '질은 보라색의 배경 속에서 학생들의 일치된 함성과 사랑 그리고 우정이 힘찬 울림으로 다가오는 수작'으로 심사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중등부 최우수상은 주인영 학생의 「우주 여행」으로, '먼 미래의 희망을 꿈꾸는 순수한 동심을 잘 표현한 작품'으로 평가

받았다. 초등부 최우수상의 주인공은 장민경 학생의 「몰래 과자먹기」가 차지했다. '화면 가운데로 시선을 유도해 몰입감을 주는 구성이 멋진 수작'으로 호평받았다.

학생사진공모전은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생부를 신설했다. 첫 출발인 만큼 출품자는 적었지만, 신선한 아이템의 작품이 많아 학생사진공모전의 밝은 미래에 심사위원들의 큰 기대를 모았다. 사진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환호와 쾌감, 해맑은 꿈들이 담긴 이번 전시에 그들의 꿈과 열정이 한 뼘 더 자랐길 희망해 본다.

문의_051)631-4111 / 편집실

제39회
부산청소년
예술제

부산청소년 세계차문화예술제

2025. 4. 27.
부산예술회관 야외광장



1 다도 체험 2 부산차문화진흥원 부스 3 다식 만들기 체험

부산차문화진흥원(회장 이미자)은 부산청소년 세계차문화예술제 일환으로 다도 체험과 다식 만들기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다도는 차물을 달여서 차를 마시는 다법의 행위를 통해 덕목을 성취하는 것이다. 또한 다도는 예절과 행동규범을 정신적으로 승화시켜 예술적 심미감, 마음의 안정과 즐거움까지 누리게 한다.

부산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한창 뛰어놀던 학생들은 다도 체험 부스 앞에서만큼은 차분한 자세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찻자리 체험에 응했다. 다소 생경한 분위기의 다도 체험에서 시연을 보고 다도구를 조심스레 다루는 모습들이 꽤 진지했다. 다식 만들기 체험에서는 다식판에 야무지게 눌러 만든 전통 다과를, 입을 가리고 조심히 맛을 음미하

는 모습이 그들의 아름다운 심성과 행동을 더 돋보이게 했다. 고운 색상과 한 송이의 꽃이 곁들여져 완성된 아름다운 찻자리는 모든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기에 충분했고 차 한잔에 우려진 향과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바쁜 일상에 쉼표를 선사했다.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차 세계는 또 다른 세상의 경험일지도 모른다. 손바닥으로 찻잔을 받치고 한 모금씩 천천히 음미하는 방식은 그들이 지금껏 바쁘게 경쟁하며 달려온 속도를 조금 늦추고 평안과 고요를 선사했을 것이다. 부산청소년 예술제의 추억이 예술의 가치를 발견하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 편집실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오페리움 한울 장미꽃 가시, 카르멘

2025. 4. 30. 오후 7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4월 30일 저녁, 문화가 있는 날 네 번째 공연이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빈틈없이 채워진 객석의 기대를 한아름 안은 무대는 피아노 선율로 그 시작을 알렸다. 무대 위에 Piano 4 Hands로 연주되며 울려 퍼진 「Carmen Fantasy」는 화려하면서도 섬세한 선율을 선사했다.

이날 무대는 오페라 전문 단체 [오페리움 한울]이 선보인 〈장미꽃 가시, 카르멘〉.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에서 주요 장면을 발췌해 스토리텔러의 해설과 함께 풀어낸 콘서트 형식의 공연이었다. 오페라의 서사를 단순히 축약하는 것이 아닌, 감정과 음악을 응축해 관객에게 전달하는 구성으로 남다른 무대의 밀도를 느끼게 해주었다. 담백한 해설로 극을 이끈 김나정 스토리텔러는 복잡한 이야기의 흐름을 부드럽게 풀어내며 관객들의 몰입을 이끌었다. 음악은 이야기의 감정을 따라가듯 정교하게 이어졌고, 성악가들의 표현력은 무대 장치 없이도 장면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정연실(카르멘)은 「Havanera」를 통해 자유를 갈망하는 여인의 강렬한 개성과 매혹적인 에너지를 설득력 있게 담아냈다. 김정권(호세)과 이수진(미카엘라)은 「Parle moi de ma mère」를 통해 따뜻하고 순수한 감정선을 공유했고, 최대우(에스카미요)의 「Toréador」는 유쾌하고 힘 있는 무대로 극의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60분의 길지 않은 공연이었지만, 관객의 감정을 사로잡기에는 충분했다. 공연이 끝남과 동시에 객석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피아노의 선율, 그리고 오직 목소리와 연기만으로 진행된 이 무대는 오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 되문게 했다. 해설과 음악이 어우러진 구성은 오페라를 어렵게만 느껴왔을 관객들에게 클래식 공연의 문턱을 낮춰주는 효과적인 시도였다. 오페리움 한울은 오페라와 클래식 성악의 대중화를 지향하며, 기획부터 연출까지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단체다. 이번 공연에서도 단원들의 안정된 호흡과 완성도 높은 연주가 돋보였고, 오페라를 음악 극처럼 체감하게 하는 무대 구성은 앞으로 오페리움 한울이 선보여줄 무대에 대한 기대를 높이기에 충분했다.

무겁지 않지만 결코 가볍지도 않았던 이 무대는 오페라 공연 입문자와 애호가 모두를 위한 균형 잡힌 공연으로 자리매김했다. 장미꽃 속 가시처럼 아릿한 사랑의 서사는 음악으로 되살아났고, 그 여운은 오랫동안 관객의 마음에 남을 것이다.

글_박준영



미르소리·헤르츠앙상블

부산예술회관 야외광장무대

부산예총과 부산예술회관이 기획한 ‘점심버스킹 in Madang’ 5월에는 창작국악그룹 [미르소리]와 [헤르츠앙상블]이 무대에 섰다.

[미르소리]는 가야금, 거문고, 해금, 판소리로 구성된 무대를 펼치며 전통을 뿌리에 두되, 대중의 일상에 더 가까워지도록 전통 국악에 약간의 변주를 주었다. 「상사화」부터 「사랑의 배터리」까지, 익숙한 멜로디와 낯선 악기가 교차하면서 국악은 더 이상 먼 장르가 아니었다. 국악의 스펙트럼은 우리의 고정관념보다 훨씬 넓고, 관객의 귀는 그만큼 유연해지는 시간이었다. 한낮의 바람과 어우러진 이 버스킹 무대는 전통이 새롭게 재탄생하는 순간이었다.

[헤르츠앙상블]은 〈맘마미아〉 〈드림걸즈〉 같은 인기 뮤지컬 노래와 「바람의 노래」 같은 대중가요를 절묘하게 엮어

무대를 구성했다. 특히 아이 관객을 생각해 선곡한 디즈니 OST 「Let It Go」와 「How Far I'll Go」는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다.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자 한 의도가 잘 드러난 대목이었다. 또한 헤르츠앙상블은 무대 중앙에만 머무르지 않고 곳곳을 누비며 관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이들의 뜨거운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앙코르 무대로 이어졌고, 관객과 연주자 모두가 만족하는 무대가 완성됐다.

‘점심버스킹 in Madang’의 5월 무대는 전통과 현대, 감성과 에너지가 어우러진 시간이었다. 점심시간의 짧은 여유 속에서 관객들은 음악으로 위로받고, 예술과 더 가까워지는 소중한 순간을 만날 수 있었다.

문의_070-7747-0396 / 편집실



헤르츠앙상블



미르소리

전통문화의 뜻깊은 축제 제49회 부산동래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

2025. 6. 21. ~ 22. 부산민속예술관 송유당 대연습실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동래구(구청장 정준용)가 후원하고 (사)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이사장 김익현)가 주관·주최하는 제49회 부산동래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가 6월 21일부터 이틀간 부산민속예술관에서 열린다.

부산동래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는 영남 지역의 대표 전통예술경연대회로서 지역 전통예술의 발전과 신인 전통예술가를 발굴하고 명인, 명무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중고등부 전통무용, 전통기악 경연과 무용에서 신인부, 일반부, 명인부의 치열한 경합이 펼쳐질 예정이다.

명인부 종합대상자에게는 국무총리상과 시상금 500만원, 종합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시상금 300만 원이 수여되고 그 밖에 입상자에게도 상장과 시상금이 주어진다. 특히 명인부 종합대상 수상자에게는 초

청공연 섭외, 문화대학 강좌개설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경연대회 참가신청 접수시간은 6월 19일 오후 5시까지다.

김익현 이사장은 “동래구는 오랫동안 전통예술과 민속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힘써왔다. 특히 금강공원에 위치한 (사)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는 전통문화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 전통예술의 계승과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꾸준히 노력해 왔다. 올해로 49회를 맞이하는 전국국악경연대회는 전통예술을 사랑하는 많은 참가자들이 기량을 펼치는 장이자,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뜻깊은 축제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전통예술을 계승·발전시키며,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예술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문의_051)555-0092 / 편집실



한국서각협회 부산지회전

나의 좌우명 새김전

2025. 6. 9. ~ 14. 부산시청 제1전시실

한국서각협회 부산지회는 6월 9일부터 14일까지 부산시청 제1전시실에서 '나의 좌우명 새김전'을 개최한다. 여름을 예감하는 하늘과 한숨만으로도 시원해지는 바람이 넘치는 기쁨으로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계절에 각자의 삶에 새겨진 철학과 가치를 나누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한다.

서각은 단순히 나무, 돌, 금속 등에 글자나 그림을 새기는 예술을 넘어 작가의 고유한 메시지를 담으며 인간 정신을 탐구하는 과정이다. 재료의 결에 따라 문자나 그림을 배치하고 섬세하고 세밀한 작업을 통해 하나의 조형예술로 탄생한다. 숭고한 체험이라고도 일컫는 서각예술은 예술가의 지혜를 각인하고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다.

회원 30여 명이 참가한 이번 전시에서는 김귀옥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와 윤정희의 「검손」, 곽동철의 「대하무성大河無聲」 등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자신의 좌우명으로 작품에 새겨진 글귀를 서로 나누며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새로운 영감을 얻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문의_010-3940-3060 /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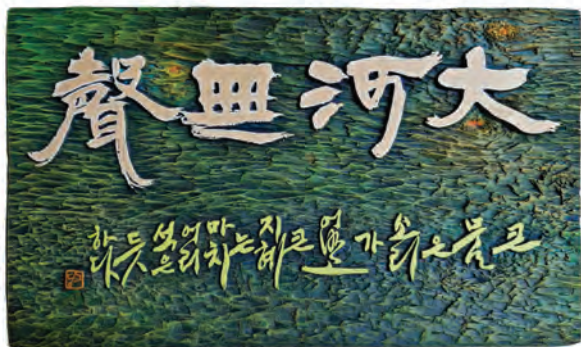
1 장현 윤정희_검손 2 청허 김귀옥_이 또한 지나가리라
3 고당 곽동철_대하무성大河無聲 4 윤정 이도학_등불



1



2



3



4

부산미술! 흥으로 협업한다

2025 BFAA국제아트페어

2025. 6. 26. ~ 29. 벅스코 제2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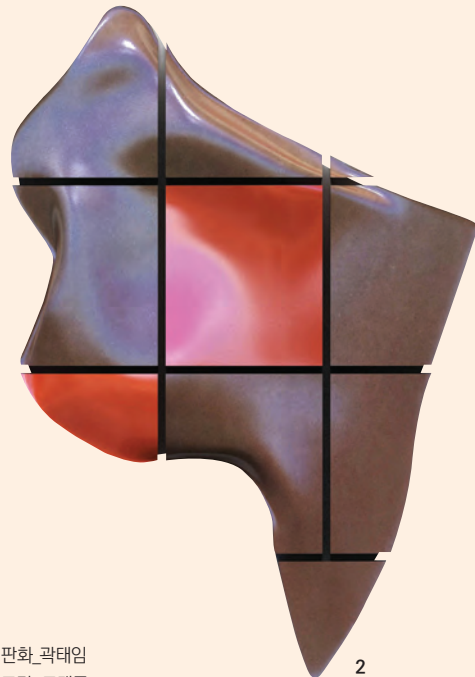
부산을 대표하는 미술 행사인 '2025 BFAA국제아트페어'가 (사)부산미술협회(회장 최장락)와 (주)디자인하우스(대표 이영혜)의 공동 주최로 '기회는 기다리지 않는다'는 주제를 가지고 예술과 산업의 가치를 결합한 새로운 전시를 선보인다.

올해로 14회째인 부산국제아트페어는 디자인 혁신과 융합한 전시형태로, 설치미술, 몰입형 전시, 컬렉터의 방, 공동 프로젝트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부산예술문화 발전에 앞장선다.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작품 전시 및 판매를 통해 지역 미술시장 활성화와 글로벌 진출의 발판을 마련한다. 이번 아트페어에서는 일본 교토와 후쿠오카와의 상호교류를 통해 국제적인 행사로 확대한다. 또한, 디자인과 미술의 협업은 새로운 문화·산업적 가치

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기간 '부산디자인페스티벌'도 함께 열려 국내외 디자인 트렌드와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를 소개한다.

부산미술협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주목하며 미래 사회에 걸맞은 예술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예술과 기술의 화합을 통해 관람객이 기존의 고정관념을 벗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카페, 가든, 인스톨레이션, 공예가 있는 집, 그래픽 굿즈 등 다채로운 특별 부스도 마련되어 다양한 문화적 체험의 기회를 선사할 예정이다.

문의_051)632-2400 / 편집실



1 판화_곽태임
2 조각_도태근



부산미술! 대융합으로 지향하다!

제45회 부산미술제 2025. 6. 26. ~ 29. 벅스코 제2전시장 6홀(F)

(사)부산미술협회(회장 최장락)가 주최하는 '제45회 부산미술제'가 올해 부산국제 아트페어와 동시에 대규모로 개최된다. '부산미술! 대융합으로 지향하다!'라는 주제 아래 평면회화, 디자인, 입체(조각), 공예, 영상미디어, 학술평론, 서예·문인화 등 12개 장르에 걸쳐 6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부산미술의 폭넓은 스펙트럼을 조명하며 동시대 미술의 흐름과 다양성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부산미술제는 1981년 시작된 이래,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북돋우고 부산미술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져온 대표적인 미술 축제이다. 올해는 예술인 간의 창의적 협업과 유대 강화 그리고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더욱 생동감 넘치는 예술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둔다.

특히, 이번 전시는 예술의 순수성과 장르의 다양성을 한층 더 부각시키며 부산미술의 전통과 현대가 융합된 문화 플랫폼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침체된 미술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부산 미술계의 역동성을 대내외에 알릴 계획이다.

부산미술제는 부산 미술인들의 축제이자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예술의 장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부산예술 생태계가 더욱 풍성해지고 지역 미술의 미래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문의_051)632-2400 / 편집실

1 문인화_홍현숙 2 수채화_어현숙 3 공예_김용철



부산 최초 클래식 전용 공연장

부산콘서트홀 개관

2025. 6. 20.

부산 최초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인 부산콘서트홀이 오는 6월 20일 정식 개관한다. 부산시민공원 내에 위치한 이 공연장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규모로, 총 2011석의 대공연장과 400석 규모의 소공연장을 포함해 파이프오르간로비, 리허설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비수도권 최초로 파이프오르간이 설치된 공연장이라는 점에서, 부산은 물론 인근 지역 클래식 애호가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개관을 기념하는 다양한 공연은 6월 21일부터 8일간 펼쳐질 예정이다.

페스티벌의 문을 여는 6월 21일에는 〈하나를 위한 노래〉가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예술감독 정명훈의 지휘 아래 [아시아필하모니오케스트라]가 무대에 오르며, 베토벤의 「삼중 협주곡」과 「교향곡 제9번 합창」이 연주된다. 「삼중 협주곡」에는 정명훈이 직접 피아노 협연자로 나서고, 바이올리니스트 사야카 쇼지와 첼리스트 지안 왕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이어지는 「교향곡 제9번 합창」은 소프라노 황수미를 비롯한 국내 정상급 성악가들과 [2025 클래식부산 시즌합창단], [창원시립합창단]이 함께 무대를 채운다.

22일에는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오르가니스트 조재혁이 참여하는 무대가 펼쳐진다. 조성진은 정명훈의 지휘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를 협연하고, 조재혁은 생상스의 「교향곡 제3번 오르간」과 바흐 「토카타와 푸가 d단조」를 연주하며 파이프오르간의 위용을 선보일 예정이다.



23일에는 피아니스트 신우예권이 APO 단원들과 함께 챔버홀 무대에 올라 포레, 베토벤, 브람스의 피아노 삼중주를 중심으로 실내악의 깊이를 전한다. 25일에는 정명훈이 지휘봉을 내려놓고 피아니스트로 무대에 올라, 모차르트, 베토벤, 슈베르트의 작품으로 꾸며진 정통 고전 레퍼토리를 연주할 예정이다.

페스티벌의 대미는 베토벤의 유일한 오페라 「피델리오」로 장식한다. 27일과 28일 이틀간 열리는 콘서트 버전 공연은 정명훈의 지휘 아래 APO와 부산시립합창단, 국립합창단, 국내의 정상급 성악가들이 참여해 웅장하고도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부산콘서트홀의 개관은 단순히 공연장의 탄생을 넘어, 부산이 클래식 음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국내외 최정상급의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이번 개관 페스티벌이 부산 시민에게 수준 높은 공연 문화를 선사하고, 예술 향유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문의 051)640-8888 / 편집실



부산콘서트홀 전경

루프 랩 부산

LOOP LAB BUSAN



BMA 미래미술관 포럼
루프 랩 부산 아트페어
무빙 온 아시아 Moving on Asia
디지털 서브컬처 Digital Subculture

4. 15. ~ 6. 29.

부산시립미술관 야외조각정원, 도모헌 등

예술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에서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으로 진화 중이다. 부산시립미술관(관장 서진석)은 '디지털시대 우리는 모두가 창작자이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아시아 최초로 이미지를 매개하는 국제 디지털 미디어 아트 플랫폼 '루프 랩 부산' (Loop Lab Busan)을 개최했다. '부산 전체가 미디어 아트로 휩싸이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을 만큼 부산시 전역 26개 전시기관 및 공공장소에서 디지털 미디어 아트 연계 전시회가 동시에 개막했다. 스페인 루프 바르셀로나를 모델로 기획된 이번 행사는 ▶디지털 서브컬처 ▶무빙 온 아시아 ▶BMA 미래미술관 포럼 ▶루프 랩 부산 아트페어 ▶참여기관 연계 전시 등으로 구성됐다. 다채로운 콘텐츠로 동시대 예술의 디지털 변주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루프 랩 부산은 부산이 예술의 도시로서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실험의 장을 펼치고 있다.

에이플러션A-Fluction 주관으로 열린 '루프 랩 부산 아트페어'는 지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국내외 유수의 화랑(갤러리) 25곳이 참여해 진행됐다. 국제 학술 세미나인 'BMA 미술관 포럼'도 이 기간에 맞춰 함께 열렸다. 이번 포럼에는 4차 산업혁명, 환경오염, 신냉전 시대 등 글로벌 위기 속에서 미술관이 수행해야 할 새로운 사회적 역할과 예술 플랫폼에 대해 논의했다. 행사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 엘비라 디앙가니 오세, 두바이 미래미술관 브렌단 맥게트릭, 독일의 카를스루에 미디어아트 센터 큐레토리얼 필립 지글러, 일본 모리미술관 마나부 야하기 등 전 세계 12개국 17개 미술관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무빙 온 아시아' (Moving on Asia)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영상 예술 흐름을 조망하고자 기획된 국제 교류 행사로 아시아 13개국 27명 예술가의 영상 작품을 소개한다. '이미지로 움직이는 아시아'라는 주제 아래 사회·문화·예술적 연

대를 모색하고 포럼, 상영회,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4월 24일 도모현에서 진행된 포럼에서는 '1부 집단 기억과 공동체적 서사' '2부 유동성과 가변성' '3부 장소의 수행성, 몸의 정치성'을 주제로 다뤘다. 도모현에서는 6월 29일까지 장우진, 유스케 사사키 등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등 아시아 13개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작가 18명의 작품 20점을 선보인다.

영화의 전당에서는 4월 25일에 양푸둥, 위안관밍, 메이로 고이즈미 등 각국을 대표하는 현대 영상 예술작가들의 단일 채널(싱글 채널) 기반의 작품을 선보였고, 5월 7일부터 14일까지 아시아 15개국, 21명의 기획자, 25명의 작가와 함께 '무빙 온 아시아 상영회'를 진행했다.

‘디지털 서브컬처 Digital Subculture’는 오는 6월 29일까지 부산시립미술관 야외조각정원과 김해공항 등 연계기관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시에는 28개국 45명의 디지털 창작자가 참여해 디지털 태생 세대가 주도하는 창작 흐름과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모호한 오늘날의 창작 환경을 여실히 드러낸다. 전시구성은 디지털시대의 비정형 추상성의 새로운 미학적 실험을 보인 ‘디지털 추상’과, 물질적 형이상학 예술의 대안이자 시장 만능주의 예술에 저항하는 작품들로 디지털 기반의 신다다이즘을 표방한 ‘다다의 빛’, 기술과 자연을 나누는 이원론적 사고를 넘어 조화된 융합의 미래사회 환경을 제안한 ‘미러링 네이처’, 창작자들에 의해 모방, 창조되어 실제와 허상의 경계에 있는 다양한 인간군상을 선보이는 ‘미러링 휴먼’까지 4가지로 구분된다.

부산박물관(4.23.~6.29.)의 ‘박물관, 미디어아트를 만나다’는 연출가 양정웅의 ‘엑스X 미인도’와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의 ‘디엔에이DNA산수’가 출품하고, 부산문화회관(4.18.~5.10.)의 ‘타임 큐비즘 Time Cubism’에는 비디오 아트 선구자 날리니 말라니(인도)와 영혼주의 철학을 다루는 카민 르차이프라시(태국), 인공지능의 작품을 통해 낯설고도 확장된 시공간적 체

험을 선사한 김기라가 참여했다. F1963(4.18.~5.18.)은 부산문화재단의 공동 주최로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인 토니 아워슬러의 대형 설치 작품을 전시했다.



국제갤러리(4.25.~7.20.)는 정연두의 ‘불가피한 상황과 피치 못할 사정들’을 진행 중이다. 전시장은 블루스 음악의 각 파트를 연주하는 다섯 음악가를 중심으로 꾸려지고 콘트라베이스 연주자의 손가락에 맞추어 빛을 발하는 향아리와 다채로운 발효의 이미지들이 펼쳐진다. 또 퍼커셔니스트들의 음악에 맞춰 밀가루를 흩뿌리는 화면은 우주를 연상시키며 가벼움과 무거움, 장난기와 엄숙함을 뒤섞은 역설적 화법은 전시 전체를 밀고 당기며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 외에도 고은사진미술관(4.18.~6.29.)에서 태국 출신 아피 çatpong 위라세타쿤과 코라크트 아룬나논차이의 영상 작품을 선보이고, 조현화랑(4.12.~6.1.)에서는 프랑스 작가 필립 파레노의 전시를 진행한다. 디오티미술관(4.18~6.28)에서는 ‘이용백: Selected Works 1995-2025’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문의_051)740-4268 / 편집실

부산사진작가협회 초청 작가 특강

Harmony in Photography

2025. 5. 2.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미니멀한 프레임 안에 삶의 무게와 상징을 담아내는 폴란드 사진작가 마르친 리체크(Marcin Ryzek)가 부산을 찾았다.

부산사진작가협회(회장 강종관)가 주최한 초청 특강 'Harmony in Photography'가 5월 2일 오후 2시, 부산예술회관 1층 공연장에서 개최됐다.

루블린에서 태어나 크라쿠프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리체크는 기하학과 심볼을 기반으로 한 미니멀리즘과 심볼릭 사진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은 작가다. 그의 대표작 「눈 속에서 백조에게 먹이를 주는 남자(A Man Feeding Swans in the Snow)」는 해안가의 직선을 사이에 두고 하얀 눈과 어두운 물의 대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이루는 균형을 상징적으로 담아낸 작품이다. 2013년 미국 『허핑턴 포스트』는 이 사진을 세계 최고의 사진 5장 중 하나로 인정했으며,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과 폴란드 실레지아 박물관에서 소장 중이다. 크라쿠프의 비스와 강 인근에서 촬영된 이 장면은 백조 떼와 검은 물, 그리고 그 사이에서 먹이를 주는 인간의 존재가 맞물리며 빛과 어둠, 고요와 움직임 사이의 조화를 시각화한 사진으로 평가받는다.



「A Man Feeding Swans in the Snow」



특강 사진 「Emigration - The United States of Earth II」



「Out of the herd」

그는 이날 강연에서 사진의 단순한 프레임 속에서도 철학적 질문과 인간에 대한 통찰을 담아내는 창작 과정을 공유했다. 인간과 자연, 인간과 신 사이의 관계를 조명하는 ‘조화’의 주제를 오래도록 탐구해 왔으며, 최근에는 기술과 일상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부조화’도 카메라에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진보하는 기술과 삶의 디지털화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담은 「인간다움/디지털 - 산토리니의 일몰」Humanity/Digitality - Sunset in Santorini」이 있다.

현장에서 소개된 또 다른 작품 「히로시마 - 잿더미에서 떠오르는 불사조」Hiroshima - Phoenix Rising from the Ashes」에서는 핵전쟁의 폐허를 넘어 재생과 부흥의 상징으로 떠오른 히로시마의 풍경을 담담하게 포착했으며, 「인생의 그래프」The Graph of Life」는 한 인간의 삶 전체의 흥망성쇠를 영리하면서도 단순하게 표현한 작품으로, 삶의 굴곡을 난간의 형태에 비유한 시각적 은유로 큰 인상을 남겼다. 청중과의 대화 시간에서는 “촬영에서 영감을 받는 순간은 대부분 평범한 일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 장소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 일이 일종의 명상이 되기도 한다”며, 제대로 된 작품 촬영을 위한 인내심의 필요성을 전했다.

선착순으로 마감된 이번 강연은 사진을 사랑하는 시민들과 예비 작가들로 가득 채워졌다. 리체크의 사진 속에 녹아든 깊은 상징성과 구성미는 많은 청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는 사진이 단순한 시각적 기록이 아니라, 세상 속 조화를 발견하는 철학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마르친 리체크는 본인의 창작 과정과 사진 철학,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하며, 예술가로서 겪은 사유의 시간과 작품에 담긴 상징에 대해 진솔하게 풀어냈다. 그의 강연은 청중에게 ‘어떻게 찍을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남겼다.

문의_051)631-4111 / 편집실

제43회 부산연극제
시민평론 아카데미 우수작 II

인생의 회전목마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

2025. 6. 21. ~ 22.

부산민속예술관 송유당 대연습실



〈그 곳_ chapter1. 오래된 집의 회전목마〉는 2025년 4월 13일 용천소극장에서 상연한 연극으로, [예술집단 하우]에서 제작했다. 이 작품은 '오래된 집'과 '회전목마'라는 키워드만 공유하고 서로 이어지지 않는 세 가지 이야기를 모았다. 등장인물들은 회전목마에 탄 것처럼 반복된 인생을 산다.

세 가지 에피소드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첫 번째 에피소드였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푸르본과 푸르본이 데려다 키우는 소녀 위헛의 이야기다. 푸르본은 언뜻 보면 돈이 많고, 고아를 들이고 그 아이로 행복을 얻는 정 많고 교양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사실 푸르본은 돈이 많지도 않으며 위헛이 바깥에 나가지 못하게 통제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길들이려 하는 어딘가 뒤틀린 사람이다. 푸르본이 위헛을 통제하는 이유는 위헛이 자신의 비밀을 마을 사람들에게 발설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인데, 이야기의 끝 부분에서 마을 사람들은 푸르본의 이러한 성향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하지만 푸르본은 자신의 거짓말이 들킨 것을 위헛에게 덮어씌우고 복숭아 알레르기를 이용해 위헛을 죽인다. 그리고 위헛과 똑 닮은(같은 배우가, 같은 옷을 입고 연기한다) 소녀를 다시 들이며 이러한 일이 반복될 것을 암시한다.

이 에피소드에서 위헛은 우리가 숨기고 싶어 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징한다. 우리는 자신의 못난 부분을 숨기고, 마치 그런 특성이 있지 않다는 듯이 연기한다. 이런 가면을 들켰을 때 우리는 그 잘못을 타인에

게서 찾지만, 사실 그 모습이 들킨 건 자신의 행동 때문이다. 여기서 아
이러니는, 사실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숨기고자 하는 어떤 부
분 자체가 아니다. 그 부분을 부끄럽게 여기고 감추려 하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한 예시로, 푸르본은 자신의 집을 방문해도 되겠느냐는 허프논
의 제안에 벽난로를 수리 중이어서 어렵다고 대답하는데, 사실 푸르본
의 집에는 벽난로가 없다. 이후에 푸르본은 자신의 거짓말이 들켰다고
느껴지자 위헛에게 화를 내는데, 사실 푸르본이 애초에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숨기려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배우의 연기가 특히 인상적이었다. 독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 연기의 디테일 덕분에 늘어진다느 느낌 없이 인물의 생각과 감정이
잘 전달되었다. 예를 들어,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주인공이 아내의 모습
을 비추는 천을 천천히 쓸면서 퇴장하는 장면은 남자가 가진 아내에 대
한 그리움과 사랑이 잘 전달되었다.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주인공 '박
두'의 연기가 인상적이었다. 주인공이 우왕좌왕하는 장면이 많고, 줄거
리가 비교적 단순했음에도 효과적인 동선, 디테일한 행동과 말의 크기
등을 통해 극을 흥미진진하게 이끌었다.

이 작품의 주제는 작품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회전목마처럼 반복되는 삶'이다. 푸르본은 또다시 새로운 아이를
들이고, 박두는 계속 일에 치여 살 것이며, 세 번째 남자는 계속 아내를 그리워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반복되는 삶을 살게
된 이유는 인물마다 다르다. 푸르본의 반복은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망각하고 똑같은 잘못을 계속 저지르기 때문에 일어난
다. 박두는 자신의 원본에 의해 강제적으로 반복된 삶을 산다. 반면, 세 번째 에피소드의 주인공 남자는 “다음 생에는 돌로
태어나고 싶어요. 돌은 시간을 살지 않잖아요”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할 힘도, 심지어 자신이 존재
한다는 것을 알릴 힘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고인 시간 속에 산다.

연출 역시 주제를 전달하는 데 기여했다. 무대 끄트머리에 조명을 받아 눈에 띄는 소품이 있는데, 이 소품을 에피
소드마다 바꾼다. 첫 번째에서는 화분, 두 번째에서는 조명, 세 번째서는 인형이었다. 이 소품은 인물이 처한 상황을 나타낸
다. 위헛은 화분처럼 타인에 의해 가꾸어지며 정해진 반경 밖으로는 나갈 수 없다. 박두는 조명처럼, 본체가 원할 때는 언제
든 꺼져야 하는 존재다. 세 번째 에피소드의 남자는 무정물인 인형처럼 시간을 살지 않는 존재이고 싶어 한다. 또한 연출에
향을 이용한 점도 흥미로웠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푸르본이 쏟은 코코아 파우더향과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주인공이 부은
라면 분말 냄새가 그 에피소드가 끝난 후에도 계속 남아있어서 직접적인 관련 없는 세 가지 이야기를 느슨하게 이어주었다.

<그 곳_chapter1. 오래된 집의 회전목마>는 서로 관련 없는 이야기를 엮은 독특한 구성으로 주제에 대해 다방면
으로 생각하게 한 작품이었다. 또한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와 깔끔한 연출로 관객의 몰입도를 높였다. 이들이 앞으로 어떤 삶
을 살아갈지, 인생의 회전목마에서 내려올 수 있을지 궁금하다.

글_하재원 시민평론가



카메라로 그린 그림

그림을 붓이 아닌 다른 매체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번 작업에서는 카메라를 '붓' 대신 사용해,

빛과 시간,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의 '회화적 이미지'로 재구성하였다.

즉 카메라의 움직임과 셔터 속도, 초점 조절, 다중노출 기법 등을 통해

우연성과 의도성이 결합된 이미지를 만들었다.

이 작업을 통해 사진과 회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창작의 재미를 함께 공유하고 싶다.

글 사진_한미숙 부산사진작가협회 홍보간사







개, 쫓이

‘쫓이’라고 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하다못해 전자제품 하나도 들고나는 일이 흔하게 껴어지는 곳인데 날마다 동네를 휘젓고 다니던 녀석의 이름을 이제야 알게 되다니. 좀처럼 경계를 허물지 않아 반경 몇 걸음 이내로 다가가 보지는 못했지 만 그렇다고 해서 관심조차 없었던 건 아닌데.

서너 해 전, 밋밋하던 시골 풍경 속으로 녀석이 들어왔다. 마당 귀퉁이의 비어 있는 건사를 꿰차기에는 지나치게 여리고 왜소했으나 시간이 해결해 줄 일이었다. 우리 집 화단에서 뵈히 보이는 곳이 녀석의 집이었으므로 오가며 적잖이 낮을 익혔다. 그러나 녀석에게 이름이, 그것도 거실과 침실을 제멋대로 누비고 다니며 애 지중지의 호사를 독차지하는 반려견에게나 어울릴 법한 새뜻한 이름이 있는 줄은 정말이지 몰랐다.



리즈시절의 녀석은 뽀얀 털색만큼이나 영민해 보였다. 두루뭉술한 주둥이에 커다란 발을 가진 동네의 믹스견들과는 틀부터 사뭇 달랐다. 귀도 뽀족 입도 뽀족, 안면을 따라 만들어지는 두상 頭像도 평이하지는 않았다. 사람에 비유하자면, 콧대 높은 ‘차도남’ 정도의 분위기를 풍겼다고 할까.

흔한 동네 개들에게 그러했듯, 사람들은 택호를 동원해 ‘**댁 개’로만 녀석을 지칭했고 나 역시 개를 개라 부를 따름이었다. 매일 눈도장을 찍다시피 하는 이웃사촌이니 나와 녀석 사이에도 비슷한 온도의 감정적 교류쯤은 생겼으리라 막연히 추측만 했다.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격성을 발휘해도 마땅한 이유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다.

일가구 일견—家口一犬 이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치, 이곳은 개가 많다. 사람이 그러하듯, 심심하고 진부해진 일상에 금세 적응을 하는 것이 개다. 양지바른 곳을 차지하고 누운 채 누가 가든 누가 오는 눈알만 게으르게 굴리곤 한다. 흔해빠진 ‘개조심’의 문구조차 찾아볼 수 없다.

녀석은 두어 해를 넘기고도 양칼진 목소리를 고집했다. 사람들로부터 ‘못된’, ‘별난’, ‘까칠한’과 같은 곱지 않은 수식어를 부여받으면서도 가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바깥세상을 목소리로 넘나 들었다. 안쓰러운 마음에 몇 번인가 울타리 너머로 인사를 청해 보았지만, 대답 대신 허연 이빨을 드러내는 것으로 내 호의를 단번에 몽개버리곤 했다.

온종일의 부자유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타고나기를 오지랖이 넓었던 건지. 차든, 사람이든, 오토바이든, 녀석은 고삐를 지나는 모든 존재를 향해 ‘컹컹’ 간섭하고 들었다. 조그만 털복숭이가 내지르는 나름의 위협이나 경고는 그다지 위압스럽게 느껴지지 않았다. 성견이 되어갈수록 녀석의 목청은 제법 동네를 쪼뼛 흔들었으나 네 발이 묶여 있는 한 위해를 걱정할 일은 아니었다. 당연히 녀석의 점점 옹골차지는 이빨도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런 녀석이 내게 이빨을 꽃았다. 대문을 들어설 때부터 주위를 어슬렁거리기는 했다. 거기까지 이리라 잠시 방심을 했던 것이 참사를 불러오고 말았다. 축담 아래에서 어르신과 잠시 한담을 나누고 섰는데 와락 덤벼든 것이었다. 녀석의 급습에 움찔하는 사이 두어 걸음 물러섰던 녀석은 나를 향해 허연 이빨을 있는 대로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금방이라도 다시 달려들 태세였다.

영겁결에 거실로 뛰어들었다. 왼쪽 바짓가랑이를 건어 올렸더니 무릎께의 살갓이 제법 벗겨진 상태였다. 개의 입질에 당해본 건 태어나 처음이었다. 괜찮겠거니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연만한 어르신이 놀라실까 봐 더욱더 대수롭지 않은 척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녀석은 집요했다. 그 정도로는 성에 차지 않았던 것일까. 경계의 눈빛을 겨누는 채 연신 내 뒤를 걸음걸음 따라붙는 녀석으로부터 최대한 나를 엄호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상처는 생각보다 심했다. 욕신거리는 건 둘째치고라도 선명하게 기억 자로 패인 이빨 자국을 따라 피가 맺히고, 상처 주위로 시퍼렇게 멍이 올라와 있는 것이었다. 그제야 가슴이 콩닥거리고 다리도 후들거렸다. 소독을 하고 연고를 바르기는 했지만 병원을 가야 하는 게 아닐까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기는 했다. 그러나 입질을 하는 개는 무조건 없애야 한다는 게 개에 관한 대세가 아닌가. 없애지는 것의 말로를 모르지 않기에, 최대한 시끄럽지 않게 견뎌볼 요량을 했다.

바깥 어른이 세상을 떠난 후 녀석을 풀어놓기 시작한 것이 화근이었다. 그러나 녀석은 주어진 자유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지면 황급히 꿈무늬를 감추었다가 뒷모습을 확인하고서야 튀어나오곤 했다. 통행세를 요구하듯 맹렬한 목청을 앞세우며 사람이든, 네 바퀴든 죽으라 쫓아가다 슬그머니 돌아서는 정도가 녀석이 행사하는 자유였다.

유모차를 밀고 다니는 어르신들의 마실길을 호위하는 중에도 다르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도, 자식들도 여러 번 만류했지만, 그때마다 마지못해 잠시 목줄을 걸었다가 이내 다시 풀어주시는 것이었다. 저러다 누구 하나 물리지. 사람들은 볼 때마다 녀석을 입에 올렸으나, 내가 당사자가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나는 단 한 번도 녀석에게 악의를 품은 적이 없었다. 실상 크게 짖어대는 일은 겁 많은 녀석의 허세라는 것을 알기에 외려 측은지심으로 바라보았을 뿐이다.

어쨌거나 현장에서 입질을 목격하셨으니 녀석의 자유는 차압당하고 말 것이었다. 내 한쪽 다리를 희생양 삼아 제2, 제3의 피해자를 예방했으려니, 뜬금없는 박애 정신으로 절뚝거리며 돌아오는 와중에 들었다. ‘종아!’ 어르신이 녀석을 부르는 소리를.

‘종이’는 우리 집 반려견 ‘재롱이’의 첫 이름이었다. 대여섯 달 된 애송이를 두고 마땅히 떠오르는 이름이 없었다. 그저 앙증맞고 귀여워 찾아낸 것이 종이였다. 보호자가 되기로 하신 친정 부모님께서도 꽤히 그러자 하시기에 동물병원에도 ‘종이’로 등록을 해두었는데, 얼마 후 ‘사랑이’로 개명을 하셨다는 연락이 왔다. ‘사랑이’도 오래가지는 않았다. 그 어린 것이 얼마나 부모님께 재롱을 피워냈는지 결국 녀석은 ‘재롱이’로 정착을 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치다꺼리를 버거워하셨던 까닭에 결국 내 집에 남은 여장을 풀기는 했지만.

재롱, 재롱, 재롱... 내가 하루에 수십 번씩 노래처럼 외고 다니듯, 어르신 역시 종이만이 유일한 말 상대였는지도 모르겠다. 사랑방엘 가도 혼자요, 집에 있어도 혼자라시며 만날 때마다 혼자를 토로하시는 형편이니 미물이나마 들어줄 귀가 얼마나 귀하게 느껴졌으랴. 수없이 녀석의 이름을 불러주며 말도 통하지 않는 녀석과 심중을 주고받았을 게다. 자식들이 와도, 손주들이 와도 타인



보듯 짓어대는 통에 식구도 못 알아보는 놈이라는 지칭구를 들으면서도, 어르신
의 손길에는 고분고분 온몸을 가져다 바치곤 했으니. 어쩌면 ‘종이’는 어르신만 아
는 이름, 어르신만 애타게 불러주는 이름인지도 모를 일이다.

멀찍이 목줄이 채워진 녀석의 하얀 실루엣이 일렁거린다. 뜨거운 맛을 봐서인
지, 이제 나는 종이가 무섭다. 계속 구금이 되든, 어르신의 변심으로 다시 풀려나
든, 날마다 녀석을 마주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노릇이다. 어떤 식으로든 녀석
과 관계 정립을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르신처럼 살갑게 종이를 종이라 불
러 볼까. 짓음은 겁의 다른 표현이라니 내가 먼저 ‘경경’ 녀석을 향해 목청껏 짓
어나 볼까.

글_문경희 수필가



부산국제무용제 AK21 안무가 육성 경연 우수상 무용수 황세민

- 부산대학교 석사 재학
- 현대무용단 자유 정단원
- 제33회 부산무용제 우수무용인상(남)
- 제33회 전국무용제 솔로부문 은상
- 제28회 새물결 춤작가전 최우수작품상, 우수무용인상(남)
- 제21회 부산국제무용제 AK21 안무가 육성 경연 우수상

황세민 무용수는 어릴 적부터 활동적인 것을 좋아했다. 친구들과 축구를 즐기고 음악에도 꾸준히 관심을 보였던 그는, 드럼을 연주하며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이를 계기로 예술과 더욱 가까워졌지만, 진정한 전환점은 한 남자 무용수를 본 순간 찾아왔다. “제가 알던 무용은 여성스러운 이미지였는데, 그 선배의 춤은 전혀 달랐어요. 멋있었고, 남성적인 무언가가 있었어요.” 음악과 운동이 결합된 무용에 매료된 그는, 본격적인 진로 전환을 결심하고 따로 무용학원에 다니며 입시를 준비했다.

현재 그는 부산대학교 무용학과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며, [현대무용단 자유] 소속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군 복무 후 무용단에 소속되며 느낀 소속감은 새로운 에너지를 안겨주었다. “혼자서는 나만 잘하면 되지만, 팀 안에서는 다 같이 어우러지는 감각이 중요하더라고요. 동화되려는 노력을 하게 됐어요.” 무용수로서 조화를 중시하는 그는, 안무가로서의 책임감 또한 깊게 느끼고 있었다. 창작 안무를 함께하는 무용수들을 배려하며, 끝난 후의 격려와 칭찬은 더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최근 그는 2025 부산국제무용제의 AK21 안무가 육성 경연에서 〈수취인 불명〉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AK Arts Korea 21은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전도유망한 안무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무대이며,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주최하고 (사)부산국제무용제조직위원회(운영위원장 신은주)가 주관한다. 황세민은 이 무대에서 감정의 단절을 주제로 작업을 선보였다. “아무리 말을 해도 감정이 다 전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낸 사람도, 받은 사람도 결국엔 서로를 모르게 되는 것 같아요. 마치 수취인 불명처럼요.” 그는 이전에 참여한 ‘새물결 춤작가전’에서의 성취를 통해 자신감을 얻었고, 그 경험은 국제무용제 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무용수들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기만 하던 자신이, 처음으로 하고 싶은 말을 자신 있게 표현했던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꾸준히 경연에 참가하고 수상 이력을 쌓아온 이유는 단순히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부모님이었다. 음악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이었던 아버지는, 무용을 하겠다는 아들의 선택에는 선뜻 동의하지 못하셨다고 한다. “처음엔 무용이 여성적인 예술이란 선입견을 가지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아끼셨대요. 그런데 제가 공연하고 상도 받으니까, 이제는 자랑스럽게 말씀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부모님의 자랑이 되는 순간이 가장 뿌듯하다고 말한다. 비록 처음엔 달가워하지 않으셨지만, 아들의 길을 묵묵히 지지하고 응원해 준 부모님이기에, 더욱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며 자신의 선택을 증명하고자 한다.

경연에서 남들보다 앞서나가기 위해선 그에 맞는 역량도 길러야 한다. 안무가이기 이전에 무용수이기에, 무용수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는 일반적인 시선과는 달리, 무용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유연성이 아닌 ‘근력’을 꼽는다. “유연성도 중요하죠. 하지만 유연하기만 하고 힘이 없으면 춤이 춤처럼 안 보여요. 그냥 바람 빠진 행사장 풍선 같달까요.” 그래서 황세민은

맨몸 운동과 러닝 등으로 체력을 단련하며, 무용 자체가 지닌 운동 효과를 넘어 근육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개인 공연’을 조용히 언급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온전히 이끌어가는 무대는 가장 큰 도전이자 목표라는 것이다. 대학생 시절, 친구의 안무로 참여한 이탈리아 공연은 그에게 깊은 감명을 남겼다. 그는 다시 이탈리아 무대에 서고 싶다고 말하며, 언젠가 새로운 무대에서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펼쳐보기를 꿈꾼다.

황세민 무용수는 매 공연마다 다른 메시지를 관객에게 전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의 무대는 메시지를 던지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객석에서 피어나는 반응까지를 하나의 공연으로 여기며, 관객과의 감정 교류 속에서 비로소 무대가 완성된다고 믿는다. 스스로를 “남의 눈치를 많이 본다”고 말할 만큼 조심스럽고 겸손한 그는, 바로 그 내면의 섬세함 덕분에 예술을 더욱 단단히 다져나가고 있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기에, 타인과 호흡하는 황세민의 무대는 더욱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다. 무용수와의 호흡, 관객과의 소통, 부모와 세상 모두를 향한 자기 증명까지. 무용은 황세민의 내면을 가장 강력하고도 명확하게 드러내는 언어이다. 언어장벽이 무의미한 그의 언어가 메아리처럼 세상에 깊이 울려 퍼지길 기대해 본다.

글 인물사진_박준영



한 세월 시를 사랑하며 살던
아름다운 소풍의 흔적으로,

시인 **고승호**

- 제주시 출생
- 한국문인협회 회원, 부산문인협회 부회장,
새부산시인협회 고문, 동래문인협회 고문,
부산불교문인협회 자문위원
- 부산문학상 우수상(2020), 실상문학상 작가상(2019),
을숙도문학상(2019), 동래문학상 대상(2022),
국제펜부산문학상 작가상(2020)

삶을 찬미하며 자연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깨달음을 노래한 천상병 시인은 세상 떠나는 일을 ‘귀천(歸天)’이라 했다. 인생은 잠시 산등성이에 머무는 구름, 숲을 지나는 바람인지도 모른다고 말한 고승호 시인은 팔순을 넘긴 나이에도 문우들과 활발히 교류하며 정신과 신체 모두 건강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여기^{Here}와 지금^{Now}’을 응시하며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람이라고 전하는 시인의 모습에서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삶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었다.

고승호는 제주도에서 태어났다. 태평양전쟁과 4.3사건, 6.25 피난 등 격난의 역사 속에서 유년기를 보냈고, 1955년 부산으로 이주했다. 당시에는 그저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해 글을 쓸 여유가 없었다. 1960년 해병대에 입대하면서 취미로 글을 쓰기 시작했지만, 등단할 생각은 없었다. 1963년 대한조선공사에 입사해 설계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성실함을 인정받아 1981년 수출진흥 유공자로

대한민국 석탑산업훈장을 받았다. 한 회사에서 25년을 근무한 뒤 1988년 퇴사했다.

이때부터 고승호는 문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톨스토이의 명작/〈부활〉을 읽으며/ 한 번씩 거둬 태어나는/ 욕망에 잠긴다’(『부활』 중)라는 고백처럼, 그는 어제의 자신을 벗고 시인으로 다시 태어났다. 퇴직 후에야 젊은 시절 취미로 간직했던 글쓰기를 다시 시작, 2008년 효원수필아카데미를 수료했다. 2010년 『문예시대』 가을호에 수필가로 등단했고, 2011년 한국문학신문 문학상 공모전 수필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후 부산시인대학에서 글쓰기 강좌를 이수하며 2015년 『부산시인』 가을호에 시로 등단했다.

고 시인은 주로 고향 제주와 부산의 자연과 일상, 삶의 경험을 시적 대상으로 삼는다. 『원당사에서』는 4.3사건의 기억을 더듬고, 『위령탑』에서는 태평양전쟁에 끌려간 아

버지를 추모한다. 하현식 시인(문학평론가)은 고승호의 시에 대해 ‘민족 수난사의 한 페이지를 들추며, 결코 망각할 수 없는 비극과 상처를 되살려내고, 차안과 피안이 하나가 되는 초월적 인식으로 시인의 광활한 인식 세계를 짐작게 한다’고 평했다.

제2의 고향 부산은 그의 시 곳곳에 스며 있다. 한 많은 오작교 「영도다리」는 피난민들이 눈물로 애환을 달래는 곳으로, 「해운대 모래알」은 푸른 근육질에 고래 숨줄기, 모래알을 보듬고 상륙하는 바다의 강인함을 드러낸다. 그의 시선은 「자갈치」의 어지러운 비린내 엉기는 자판에 한 가로이 누워있는 은빛 갈치에 닿고, 그의 발걸음은 걷기 좋은 길 「낙동강 하구」에서 힐링한다. 때 지어 나르는 철 새들과 강물에 부대끼며 흘러온 모래톱 쌓아 올린 「을숙도」에서는 도시의 소음을 밀어낸다.

‘시는 언어의 바다에서 건져 올린 불멸의 예술’이라고 했던가. 신이 내린 언어예술이 시이기에 짧은 문장 속에 깊은 의미를 담는다. 고승호에게 시를 쓴다는 것은 가슴속에 담아둔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는 일이다. 그는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도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담아낼 수 있는 시의 은유와 상징의 미학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이런 시의 매력에 빠져, 황혼의 어스름이 드리워진 나이에도 고승호는 시를 짝사랑하며 기웃거리고 있다.

자신의 작품 중 애착이 가는 시로 그는 「낙엽일기」를 꼽는다. 조선중공업 산업현장에서 삼십여 년의 치열한 삶을 다독이며, 하나둘 낙엽처럼 흩날리는 정서적 반추를 어찌할 수 없어 엮은 두 번째 시집이 『낙엽일기』다. 시집에는 4편의 「낙엽일기」가 실려 있다. 하현식은 「변증법, 그 역설의 미학(고승호의 시 세계)」에서 「낙엽일기 1」을 ‘생의 인식’으로 보고, 낙엽을 죽음으로만 규정하지 않는 데서 역설적 의미를 찾고 ‘깊은 이상’을 갖게 하는 측면을 설명했다. 「낙엽일기 2」는 낙엽의 전생을 바탕으로 삶의 회고와 의의를 형상화하며, 낙엽의 추락을 또 다른 삶을 향

고승호 시집
『낙엽일기』(2017)



한 발돋움이며 변신이고, 구르는 몸부림을 통해 새로운 지평을 여는 삶으로의 도약을 투사해 허무가 아닌 희망으로 강조했다.

고승호는 『아버지의 탑』(2016) 『낙엽일기』(2017) 『을숙도 사회』(2020) 『소낭』(2024) 네 권의 시집을 발간했다. 시를 통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묻자, 그는 “시 한 구절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과 위로를 줄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냐”고 답한다. 소소한 일상과 주변 사람들, 순수한 자연을 긍정적인 희망으로 시에 고스란히 담아, 삶에 지친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있다.

“이 땅의 어느 흙에서도 어느 바람 속에서도 그 울음이 젖어있지 않은 것이란 없다. 오직 우리만이 그 복잡한 헛바닥의 미각을 언어로 가려낼 뿐이다.”(『흙 속에 저 바람 속에』, 1962) 시인은 이어령의 글을 읊조린다.

존 캐리는 『시의 역사』에서 ‘날마다 눈사태처럼 우리를 무서운 속도로 덮치고 흘러가는 망망한 언어 속에서 시인이 몇 개의 단어를 골라 일정한 순서에 따라 배열하는 것으로 죽음을 넘어서는 예술을 창조한다’고 설명한다. 고승호는 이 땅의 어느 흙과 바람 속에 젖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언어로 배열해 긍정적인 조명과 천착을 통해 자신만의 세계를 형상화하고 있다. 생의 변방에서 시인으로 부활한 그의 욕심은 다시 시 안에서 하심(下心)으로 이어진다.

글 인물사진 정혜주

도상적 표현과 기호를 통한 신학적 신념

영설^{영설} 서상환 화백

- 미국 루이지애나침례대학교 대학원 철학박사(Ph.D.),
웨이스크리스천대학교 대학원 신학박사(Th.D.)
- 개인전 51회, 동인전 및 단체전 400회
- 제4회 봉생문화상 수상
- 제2회 송혜수 미술상 수상
- 제56회 부산시문화상(시각예술부문) 수상
- (현) 한국미협, 부산미협, 부산문인협회 시분과, 씨올회 회원

현재 한국 현대미술을 살펴보면 과거 전통성을 기반한 미술을 온전히 보전하고 발전시킨다는 의미보다는 이전의 것을 없애고 새로움을 좇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 반해 오랜 세월 신학적 사유로 전통미술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개념을 '도상'과 '기호'로 연결해 성상화(CON)로 시각화하고 천착해 온 부산의 원로작가 서상환이 있다. 일관되게 다각적 형상 구조를 피력하는 동시에 기독교를 비롯한 여러 종교에 대한 역사, 문학의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그의 구도적 삶의 행적은 작품세계로 이어진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그림과 작품에 반영된 사상

서상환 화백은 1940년 일본 교토에서 태어났다. 이후 1946년 봄, 한국 경남 거창으로 이사하고 거창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교내그림그리기대회'에서 입상하며 주변에 많은 호응을 얻고 그림에 대한 흥미와 미술 시작의 계기를 다지게 된다.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 입학 이후 선생님의 권유와 미술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인데, 그림에 사상적 배경과 관념 형성의 시기도 이듬해 중학교 2학년 때이다. 수업 중 조르주 루오(Georges-Henri Rouault(1871~1958)¹⁾의 인간애와 예술관에 깊이 감명을 받고, 그는 기독교적 신념으로 종교 화가의 꿈과 서원을 다짐했다. 루오의 위대함은 서 화백의 삶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미술이 이미지와 기법의 형성이라면, 그 이미지는 본인의 내면 흔적과 중요한 미래 의식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의 연속이 현재까지 그가 붓을 놓지 않고 작품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화백은 회상한다.

미술 수업 사사(師事) 그리고 전업 작가로의 삶

시간이 흘러 대학 진학 시기 부산에는 미술대학이 없었으며, 유일하게 부산사범대학 2년제 미술과가 존재하고 미술 학원으로는 경남미술원이 유일했다. 그는 당시 가정형편이 어려운 데다가 개인적으로 지도받을 곳이 마땅치 않자 찾아간 곳이 경남미술원이었다. 그곳에서 5년간 미술 기초과정 교육을 받고 대신 미술원 청소, 미술 지도를 담당했다. 주된 수업 내용은 데생과 채색화로 당시 교수님 세 분의 지도를 받았는데,故 조목하 선생에게는 색의 혼합법과 원색에 대한 인식,故 김봉기 선생은 形의 정확성과 명암의 변화 및 물체, 배경의 질감과 양감에 대해서 배웠으며,故 김종식 선생은 그림의 상징성이 가진 의미를 통하여 화백에게 새로운 인식을 심어준다. 이들은 서 화백의 미술 기초가 되는 주제와 정체성 설정에 있어서 영향을 끼친 중요한 '시절 인연'들이다. 특히 경남미술원 5년을 마친 후 1975년까지 김종식 선생님 화실에서 그림 평가를 받았는데, 주로 이미지 형성을 위한 심리와 정신적인 부분의 안정 때문이었다고 고백한다. '성상화'에 대한 개념 연구 시작은 김 선생이 "자네 그림 속에 성상학적 색채가 짙다"고 언급하며, "신학대학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면 자네가 가진 그림의 상징적 의미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한 권유로부터였다.

이후 1966년도부터 1974년까지 경성대학교 신학대학(전신)에서 신학 공부를 하며, 1964년 부산 중앙동에 있었던 시공보관(부산시청)에서 제1회 첫 개인전을 연다. 대학 재학 기간 중 중등 교원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교원 자격을 획득하고, 녹산중학교, 김해중학교, 송도 중·고등학교에서 미술 교사로서 교직 생활을 병행했다. 이후 경성대, 신학대 미술과, 대학원에서도 강의를 이어갔다. 1976년도 중등학교 교단에서 물러난 후 개인 작업실을 운영, 다수의 문하생을 가르치고 틈틈이 작품전도 진행하기 시작한다. 그는 작품이 팔리고 그것에 의존하는 생활에 대한 현실적 부침과 힘든 점을 예

기하면서도 오히려 유화, 판화, 도자, 수채화 등 여러 매체 작업을 통해 작품의 다양성을 추구하며 대중과 소통했다. 서 화백은 작가의 삶을 일종의 '구도자' 삶에 비유하며, 끊임 없는 수행을 통해 자신을 승화시키고 사회를 정화하는 성화(聖化)의 삶을 추구한다.

신학적 연유로 풀어낸 한국적 성상화(CON 표현)

서 화백의 초창기 작품의 특징은 구상 작품 위주의 표현방식을 채택하고 구현했다는 점이다. 주 소재는 기아, 서민의 애환, 화골 등이다. 제2회 개인전부터는 기독교적 해석을 집약한 「십자가와 부활」을 발표하는데, 이 시기에는 작품주제를 삶에서의 성찰과 깨달음이 엮보이는 표현들이 함께한다. 그의 도상학의 출발점은 예수의 삶에서 시작하고, 1965년부터 그의 작품세계에서 도상화가 본격적으로 시각화된다.

만다라 시리즈 Mandala series
두방지(시키시)에 색연필, 먹, 아크릴, 40.9×31.8cm, 2025





생성
캔버스에 유채
33×24cm
1988

이때부터 구상에서 비구상으로 표현의 방향성을 옮기고 의식의 흐름과 예술적 본능에 변화를 가져갔다. 그 표현의 시작은 「예수 부활」 「십자가」 「제자들의 순교」로 유화, 수채, 도각(도자기에 각), 도조 등으로 표현되었다. 1980년도에는 『성상화ICON』 한국 최초의 화집을 발표한다. 도상과 상징적 이미지들은 동양사상, 티베트 밀교나 우리 전통 문양으로 구성되어, 외래적 이미지의 차용이 아닌 가장 한국적 도상을 재해석하고 표현했다. 이러한 적용은 종교, 문화적 경향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궈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전통적 기독교 세계관의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할 정도로 열띤 논쟁의 쟁점이 되기도 한다. 그는 우리에게 친숙한 전통 문화를 '성상화'에 접목하고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대중에게 알리고자, 사찰과 박물관을 수없이 찾아다녔다고 전한다. 유교, 불교, 선교를 아우르며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상징적인 형상을 통한 인류의 내밀한 자아와 정신적인 탐구를 표현했다. 도상의 출발점은 성경의 원리이며 동양적 패턴으로 풀어보려는 시도는 만다라와 단청, 티베트 만다라의 인용, 대장경의 변상도 판화 등의 방법을 이용했다. 그 영향으로 작품

속엔 상하, 좌우 없이 우주 자체로 하나를 이룬다.

서 화백은 현재까지도 일반화된 종교의 개념과 이미지의 고정관념을 꾸준히 변화시키고 작품에 적용한다. 한국인의 의식 속에 있는 여러 종교의식을 따르지 않고 서구의 방식으로 해석한 기독교의 일방적 의식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서구 중심의 성서를 한국 문화와 연결하는 토착화 신학을 시도했다. 예로 흔히 불교의 상징이라고 여기는 연꽃이나 물고기를 새로운 눈으로 해석해 '성상화'에 접목한 점이다. 화백은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지도 100년이 훨씬 넘었으나 아직도 서양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언급하며, 다석 유영모와 윤성범, 함석헌의 소수 작가만이 한국적 사유에 기인한 기독교 표현 방식을 이어가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그림의 토착화는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현장을 성서와 현장성으로 구체화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980년도 『ICON』 화집 발간 후 『비바 돌로로사

Via Dolorosa²⁾』『엘리 엘리 레마 사바다니³⁾』 등의 작업은 그러한 시도 중 하나였습니다. 1995년 이러한 작업이 인정되어 미국 루이지애나 침례 대학원에서 성서학 박사를 받았고, 이에 따라 분명한 것은 우리 몸에서 우러난 것이 우리 것이며, 우리의 성상화라는 것입니다.”

그도 처음엔 사물을 보이는 대로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술의 기초 확립으로 특히, 드로잉(테생)의 중요성과 이것이 단련된 후에야 이미지의 표현법 등 다양한 방향의 작업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현재까지 그의 작품에는 드로잉에 기반한 작품이 다수로, 표현방법에 있어서 '밝음, 배경, 어두움을 분할하고 배열하는 것이 기본이다. 과거 문맹 시대에는 상호 의사소통으로 그림이 통용되었고, 대중들은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문맹 시대가 지나면서 현재 그림은 기록이나 장식적으로 그 사용 의미가 달라짐에 따라 전문성을 띠며 작가의 신앙고백으로 그 존재 의미를 달리 해석한다. 이것이 그의 '성상화'에 대한 참된 의미인 것이다.

예술과 종교: 사회의 이해와 중요성

이제 아흔을 바라보고 있는 노년작가는 현재의 시대를 중

교 다원주의 시대로 정의한다. 이것은 기독교 신자로서 오랫동안 한국적 성상화(토착화·성화)를 추구해 왔음을 의미한다. 다소 성찰적 삶의 연속인 그의 모습과 정신은 삶의 고백을 구체화한 것이 성상화를 뜻하고, 서로를 구원하는 '구원 기호'를 의미하기도 한다. 작품의 정의를 나에게로 일인칭화함으로써, 작업은 내 자선이며, 나의 모든 것이라는 정의를 내린다. 언제까지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 여력이 될 때까지 작업하고 싶다는 그는 예수의 진정한 사랑은 가난한 이웃과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다. 50여 년 이상의 긴 세월을 변함없이 전업 작가로 활동하며 오랜 기간 일관되게 성상화의 여러 요소를 기묘하게 변형시키고 한국적 형상들을 도입시킴으로써, 마침내 독자적이고도 이색적 회화의 양식으로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창조했다. 아직도 끊임없이 시도하고 노력하려는 그의 올곧은 정신은 인터뷰 내내 감동으로 다가왔다.

글 인물사진_백근영

- 1 조르주-앙리 루오는 주로 종교 화가로 일컬어지는 20세기 프랑스 예술가이다.
- 2 라틴어로 고통의 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갈보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예수와 고난의 길을 뜻한다.
- 3 시편 제22편 1절-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를 의미한다.



만다라 시리즈 Mandala series
원목에 혼합재료 Mixed media on wooden board,
원형 30cm, 2020



신어神語, 캔버스에 먹, 아크릴, 2000

소리 광대

김 순경

명장은 소리 하나에 모든 것을 쏟아 붓는다.
 함주한 감정을 양정서도 무뎠게 걸러듯 배제한다.
 오직 관객의 마음을 울리는 상음과 한이 서린 영혼의
 소리를 찾아 끝없이 제언다.

학자도 생이 없으면 소리의 맛도 없다. 양이 다보
 기쁨으로 불려야 감동을 준다. 영혼이 없으면 맛있는
 노래에 지니지 않는다. 깊은 맛이 없으면 귀뚜랑이
 먼저 돌아온다. 생이 지는 한수록 한이 못이
 나는 소리를 읊대낸다.

강산이 벼락도록 상음만 울림고 있다. 하늘
 달은 깊은 내쉬고 강산도 제대로 다지 못한다.
 저승은 뜨거지 않은 생목으로 소리만 걸러
 대다. 감수록 화려한 복장과 창방에만
 의도하는 선무당이 한가득 진다.

작가노트 | 한동안 혼자 응얼거리며 소리꾼 흉내를 냈다. 한 소절도 제대로 내뱉지 못하고, 다시는 소리를 하지 않겠다며
 애써 외면했다. 가슴속 깊은 곳으로 밀어 넣었던, 요동치던 뜨거운 마그마가 두꺼운 지표를 뚫고 폭발하는
 날은 주체하기 힘들 정도였다. 판소리에 정식으로 입문한 지 8년째다.

글_김순경 부산문인협회, 부산수필문인협회, 수필과비평작가회의, 부경수필문인협회 회원

RE: VIEW

- 문화** 섬김과 화해의 정신으로
동해안별신굿 _ 김신호
- 미술** 생태적 감수성과 예술의 다원성의 융합
부산현대미술관 '초록 전율' _ 백근영
- 건축** 부산의 도심 파편화와 통합성 _ 신병윤
- 음악** 부산 음악인들의 열정과 클래식의 깊이를 선사한
2025 부산음악대축제 <실내악의 밤> _ 정혜주

섬김과 화해의 정신으로 동해안별신굿

글_김신호 대구예총부회장, 대구국악협회장

동해안별신굿은 마을의 안녕과 풍어 및 풍농을 기원하기 위하여 동해안 지역의 어촌마을에서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 단위로 벌이는 마을의 공동체 제의로 주로 세습 무들에 의해 연행된다. 별신굿은 과거에는 벨순, 별손 등의 이름으로도 불리었으나, 요즘은 풍어제라는 명칭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 강원도 고성에서 부산 동삼동에 이르는 90여 개 마을에서 별신굿이 전승되고 있어 서해안이나 남해안 곳의 자연적인 전승이 대부분 소멸한 것에 비하면

동해안별신굿은 여전히 전승력이 살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부산지역에서 별신굿이 거행되었던 마을은 23곳에 이르나 현재는 칠암, 이천, 학리, 죽성, 대변, 공수, 송정, 청사포, 민락, 동삼 등 10여 개 마을로 절반 이상이 감소했다. 이들 마을 중 기장군의 6개 마을은 순번을 정하여 6년에 한 번 별신굿이 열리며, 청사포와 송정, 민락동은 4년(5년 두리)의 주기, 동삼동의 경우는 해마다 별신굿을 열고 있다.



2025 이천마을 별신굿 굿춤(김동연)

하지만 어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별신굿을 준비할 사람이 없거나,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 굿의 축소와 중단을 고민하는 마을이 늘고 있다. 또한 생업 환경의 변화와 시간적인 제약, 합리적 사고 등은 별신굿의 온전한 전승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은 별신굿 전승의 가장 큰 장애물로 향후 별신굿의 지속과 관련한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별신굿은 마을공동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함과 동시에 각 가정과 개인의 무사태평을 바라기 위해 열린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자연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신의 힘에 의지하여 풍어와 풍농을 바란다. 즉 제액초복을 통한 현실적 어려움의 극복이 별신굿의 목적이라 하겠다. 과학의 발달과 어로 장비의 현대화로 날씨 예측이 가능해지고 해상사고에 대처할 방법이 이전에 비해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자연 앞에 인간은 나약한 존재에 불과하다.

동해안별신굿을 전승하고 있는 마을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극복하고 의지할 방편으로 마을 수호신에게 마을의 안녕과 번영은 물론 어로작업의 안전과 풍어 등 인간의 힘으로만 이룰 수 없는 갖가지 바람을 기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은 단지 마을 내부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외지에 나가 있는 자손들에게까지 미치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하여 공동체 성원들은 마을의 별신굿을 여는 데 필요한 금기를 수행하고 제당을 설치하며, 손님 접대를 위해 시간과 비용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불편함을 감수한다. 이처럼 별신굿은 축제적이고 개방적이기에 마을주민 대다수가 함께할 뿐만 아니라 이웃마을의 주민도 함께 참여한다. 마을이 외부에 공개되면 마을과 이웃마을의 연대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과의 상대성을 통해 별신굿을 여는 해당 주민들의 협동과 단합을 끌어낼 수 있다.

별신굿의 전승은 굿을 연행하는 무집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마을주민들의 의지에 따라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 별신굿이 열리기 위해서는 마을단위의 추진위원회 또는 다



양한 마을조직과 굿을 연행하는 무집단, 이를 후원하는 여러 조직 및 개인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마을에서는 별신굿을 준비하기 위한 회의를 시작으로 당주무 선정 및 굿의 계약, 제관선정, 자금운용, 행사기획, 조직운영, 대외홍보, 손님접대, 행사지원 등 별신굿의 준비와 실행, 결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책임진다.

별신굿을 연행하는 무집단은 동해안지역을 근거로 활동하는 세습무계에 속한 동해안별신굿보존회, 부산 기장오구굿보존회, 영덕별신굿보존회, 강릉단오제 무격부와 강원도 일부 지역의 별신굿을 연행하는 강신무 등이 있다. 이들은 지역 내 별신굿을 도맡아 연행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별신굿을 맡기 위해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연합하여 함께 별신굿을 연행하기도 한다.

별신굿의 주인은 이를 향유하며 즐기는 주민들이다. 과거에 변변한 볼거리가 많지 않던 시절에는 별신굿이 어촌 마을에서 가장 재미있는 구경거리였다. 주민은 물론 이웃주민들과 친척들까지 몰려들었고, 멀리서 온 이들은 마을에서 숙식하며 별신굿을 구경할 정도였다. 별신굿이 열리면 난장이 서고 노름판이 벌어지는 등 마을은 온통 축제 분위기로 휩싸였다. 지금도 일부 마을에서는 축제적 전통이 이어지고 이웃마을 사람들이 구경꾼으로 참여하여 별신굿을 함께 즐긴다.

2025 이천마을 별신굿 주민들의 기원



별신굿 일정이 확정되면 주민들은 날을 정하여 마을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제의를 맡을 제관을 선정한다. 제관은 집안에 초상이나 출산과 같은 부정(不淨)이 없고 깨끗한 사람 가운데 부부가 함께 살고 평판이 무난한 사람으로, 별신굿이 열리는 날과 생기복덕이 잘 맞는 사람으로 선정한다. 제관으로 선정되면 부정(不淨)한 것을 가리고 외부 출입을 자제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금기를 수행하기 어려워 제관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제관이나 도가(屠家)는 마을 제사에 사용할 제물을 장만하며, 마을 부녀회가 중심이 되어 손님 접대에 사용할 음식을 조리한다. 제관을 선정한 다



2025 이천마을 별신굿 영신당 상차림

2025 이천마을 별신굿 세존굿



음에는 마을에서 신성시하는 장소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려 부정(不淨)한 사람의 출입을 막는다.

부산지역 별신굿의 특징은 일부 굿거리를 한 번 더 연행하는 겹굿의 형태가 많다. 겹굿은 제주집굿과 당맞이굿, 문굿을 연행한 다음 내당굿과 외당굿을 분리하여 연행한다. 내당굿은 ① 가망굿 ② 세존굿 ③ 제석굿 ④ 군웅굿 ⑤ 성주굿 ⑥ 부인굿 ⑦ 천왕굿 ⑧ 손님굿 ⑨ 황제굿 ⑩ 대왕굿 ⑪ 결립굿 ⑫ 대신굿을 끝으로 내당굿이 마무리되면 위치를 바꾸어 다시 상을 차리고 외당굿을 시작한다. 외당굿은 ① 가망굿 ② 세존굿 ③ 중도독잡이 ④ 천왕굿 ⑤ 제석굿 ⑥ 심청굿 ⑦ 용왕굿 ⑧ 산신굿 ⑨ 지신굿 ⑩ 장수굿 ⑪ 월래굿 ⑫ 대내림 ⑬ 뱃노래 ⑭ 등노래 ⑮ 거리굿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순서나 굿거리 구성은 마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지신굿이나 산신굿 등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는 거리는 연행에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고, 꽃노래나 뱃노래, 등노래 등은 한꺼번에 묶어서 연행할 수도 있다. 이는 마을 별신굿 연행의 기준이 무집단이 잘하는 굿거리를 연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전통적으로 이어오는 굿거리를 연행하기 때문이다.

별신굿은 우리의 축제적 전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고



대 국중대회를 떠올리듯 주야무휴 晝夜無休로 음주하고 군취가무 群聚歌舞하는 집단적 신명풀이가 이루어진다. 무녀들의 연술 가운데 “인의 마음이 좋아야 신의 마음이 좋다”는 이야기가 자주 인용된다. 굿을 하고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흡족해야 신들도 기꺼이 흡족해할 것이라는 무집단의 이야기는 결국 인간 중심에 별신굿이 놓여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동해안별신굿의 가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음악과 춤, 연극, 문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굿청을 장식하는 각종 지화를 비롯한 다양한 무구는 섬세한 제작기술과 화려함으로 조형적 가치도 크다. 탄소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별신굿에는 돌 하나 나무 하나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섬김의 의식이 내재 되어 있다. 특히 당나무와 같은 신목에 대해서는 나뭇가지 하나라도 함부로 베지 않고 자연과 자원을 소중히 여기는 생태학적 가치가 내재해 있다.

머지않아 마스크가 벽사의 상징으로 조명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코로나 팬데믹은 일상의 소중함을 뼈저리



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별신굿에서는 질병을 배송하여 몰아내는 ‘마마배송굿’을 재현하거나 ‘세월호위령굿’이라는 새로운 굿거리를 추가하는 등 지금의 관심사를 별신굿에 투영하고 있다. 사회문제를 별신굿 속에 녹여내어 시대와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별신굿의 축제적 전통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회복에 일조할 수 있어야 한다. 자연을 아끼고 자원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모일 때 함께 공존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음을 별신굿을 통하여 체험하고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한다. 별신굿이 축제의 장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섬김과 화해의 정신을 실천으로 옮기는 일이다.

거친 동해의 어업 환경은 신의 보살핌에 기대는 삶을 지속하였으며, 그 산물로 동해안별신굿이라는 위대한 결과물을 남기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별신굿은 신을 흡족하게 대접하는 특별한 날이자 공동체가 비밀상의 축제를 경험하고 신명풀이를 확인하는 날이다. 주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지고 마을이 번창하며, 그 결과물로 다양한 예술적 가치가 공유되고 있기에 오늘날 별신굿의 시대적 소임에 대하여 다시금 고민하게 된다.

생태적 감수성과 예술의 다원성의 융합 부산현대미술관 ‘초록 전율’

글_백근영 한국화가

부산현대미술관에서 4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 동시대 미술의 가능성과 역할을 탐색하는 새로운 시도의 하나로 ‘다원예술’을 적용하고, 이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초록 전율’을 진행했다. 이번 전시는 국내의 작가 다섯 명 임고은, 곽소진, 이수진, 하이너 피벨스, 김익명의 설치, 영상, 퍼포먼스, 사운드아트 등 다채로운 작품을 을숙도 지역의 생태에 관점을 두고, ‘숲’, ‘복잡한 층위’ 두 가지 전시 주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는 관객들에게 자연과 미술의 접목에 대한 확장성과 인식의 전환을 제안한다.

임고은—자연에 대한 사적 시선과 관계 속 변증법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면 작가들의 작품을 구역 간 숫자로 나눠 전시 중이다. 그 중 첫 번째로 어두운 암막 공간 속 임고은의 작품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공간 자체로도 궁금증을 유발하는 작품의 나열들은 시간을 회귀한 듯 동굴 속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개인의 실험실을 살짝 엿보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연출은 밀폐된 공간 속 관객에게 집중과 이질적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그림자-숲Shadow-Forest」은 물체 간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듯, 양 벽면을 기준으로 각 두 개의 스크린과 슬라이드 영상, 거울 회전판, 오버 헤드 프로젝터가 음악과 함께 일정 시간순으로 꺼지고 켜지고를 반복하며 영사된다. 겹친 이미지들은 그림자 형상을 만드는데, 문학가 헨리 데이빗 소로 Henry David Thoreau¹⁾의 『월든Walden』에서 영향을 받고, 그의 기록에 작가의 시선을 더해 이를 영상에 담는다. 원형과 직각 테이블에 놓여진 숲에서 채집한 듯한 사물은 관찰자적 시점으로 배치하고, 관객들에게는 사·청각을 지시적으로 전달하고 교감을 의도한 듯한 뉘앙스를 취한다. 음향과 장소가 겹치며 풍기는 오묘한 분위기 속 흔적들의 발견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공상적 세계관을 투영하며, 자연과 인간의



임고은_그림자-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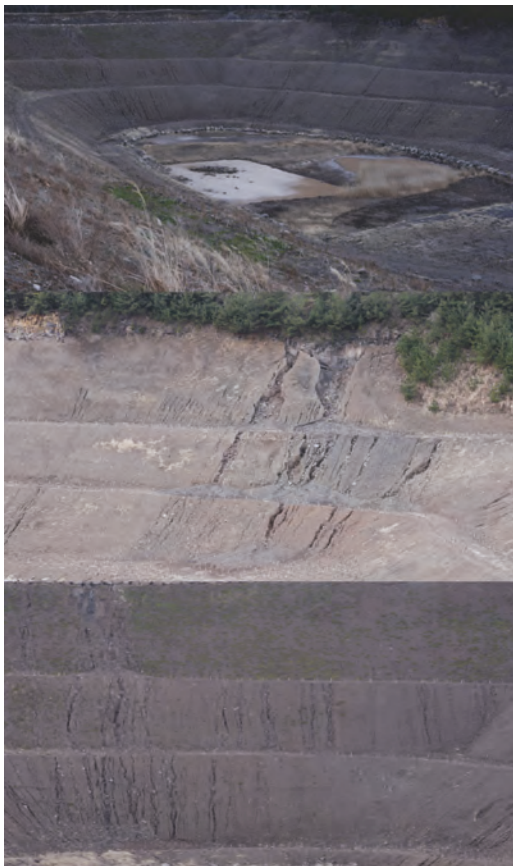
영상 설치 퍼포먼스, 프로젝터, 스피커, 16mm 필름 디지털 변환, 라이트박스, 슬라이드 필름, OHP, 거울, 회전판, 씨앗 등, 50분, 가변크기, 2025, 국립현대미술관 및 부산현대미술관 공동 지원으로 제작

사유적 관계성을 의미한다. 영상에서 자주 등장하는 원형은 마치 영화 속 숨겨진 ‘이스터 에그(Easter Egg)’²⁾와 같은 인상을 주는데, 작품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모호해진 느낌과 이색적 공간 속 또 다른 세계에 접속한 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연극이나 영화의 무대 장치처럼 구성된 작품은 작가의 특성적 구성 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넘치는 상상력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끌어낸다. 변환된 이미지들은 인문학적 성찰과 동시에 시선의 주체와 객체, 과거와 현재, 진실과 허구 사이 변증법적 관계로 풀어낸다.

곽소진—대지의 가변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

다음 2번 구역으로 시선을 이동하면 곽소진의 「무빙 그라운드(Moving Ground)」 작품이 눈에 들어온다. 노란 벽면으로 둘러 진 텅 빈 여백 공간은 수직의 탑 형태의 산업 현장에서 물건을 적재할 때 사용되는 스택িং 랙으로 구성된 작품으로, 3채널 방식의 영상이다. 작가가 화산, 채석장, 석재를 직접 찾아가 촬영한 풍경은 ‘땅’ 밑의 여러 지층이 쌓인 듯한 구성으로 층위를 구성한다. 견고해 보이는 채석장, 석재풍경은 확대와 축소의 과정을 거치면서 고정된 형태에서 벗어나 액체처럼 유동적 성질을 띠게 된다. 인식 고정불변의

경계가 무너질 때, 우리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지표면의 이미지를 새롭게 바라보게 된다. ‘땅’이라는 이미지를 유동적으로 또는 지시적으로 해석함과 동시에, 자본주의 또는 일반화의 논리를 적용한 채굴과 변형을 통해 언어가 아닌 감각의 층위로서 반복 노출한다. 영상 뒷면에는 지역 지층 공간 어딘가에 있을 법한 원석 돌무더기 박스가 놓여있다. 영상과 설치된 긴 돌무지 파편들이 실제로 드러남에 따라, 조형물과 시스템의 결합적 탐구를 하게 하고, 이는 재질과 형태의 실험 결정체를 의미하고 있다.



곽소진_무빙 그라운드

영상 설치, 3채널 영상, 컬러, 사운드, 스택িং 랙, 나무 팔레트, 원석, 8분 24초, 345×130×110cm, 2025, 부산현대미술관 지원으로 제작

이수진—비가시적 일상: 표현과 접근법

원형 푸른색 베일 안 속에 설치된 단 채널 영상은 을숙도, 부산현대미술관 주변 자연 속을 거니는 무용수들의 정해진 방향 없는 행위적 묘사와 함께 시작된다. 지시의 의미 없이 감각에 의지한 행동은 주저함이 보이지 않는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공간이 바뀌며 화면의 시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르게 다시 점으로 표현되는데, 검은 천 바닥 위 자연물과 사물 등이 펼쳐져 있고, 무용수들이 삼각 형태로 마주 앉아 막대로 어느 지점을 지정하기도 하고 바닥에 놓아주기도 한다. 원형의 실타래와 타원 철제에 비스듬히 누워 외부의 신호를 수신하려는 움직임, 원형의 종이를 들숨과 날숨으로, 타원 철제에 유리구슬과 곡물류 등



이수진, 폴리포니 클럽: 바람에 피와 살을 입히기
단채널 영상, 컬러, 사운드, 23분 36초, 2025, 부산현대미술관 지원으로 제작

하이너 괴벨스

—상상의 전야: 인류와 자연 그리고 공간에 대한 성찰

개별공간에 설치된 작품은 작가가 예술가로 가지고 있는 작곡, 연출, 현대 음악과 연극 분야에 정통한 능력을 십분 적용한 영상 작품으로, 전통적인 서사와 연출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를 통하여 관람의 새로운 방식을 제안한다. 특히 「물고기는 땅 위에서 걷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The Fish Will Have to Learn to Walk on Land」작품은 현대 사회 속 인간이 자연에 개입하며 발생하는 문제의 재고 측면을 강조한 작품이다. 4대의 프로젝터와 2대의 모니터를 이용해 전시 공간 전체를 하나의 커다란 스크린으로 삼아, 관객이 보다 열린 감각으로 작품을 경험하도록 유도한다. 이는 콜롬비아 마그달레나강과 디케 운하의 일부를 모형화해 물의 흐름, 지형 변화, 수생 생물 등을 연구하는 보고타 대학의 한 실험실을 배경으로, 장소 특정적 퍼포먼스의 아카이브 영상이다. 이에 기존 영상에 추가 편집과 음향을 더해 다른 관점

에 물을 붓고 굴리는 행위들은 특정 집단의 주술적 행위를 거행한다는 느낌과 광활한 우주 속 절대자들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영상과 함께 나오는 내레이션은 시각적 신선함과 더불어 소리를 통한 청각을 자극함으로써, 관객들에게 새로운 상상력을 불러 일으킨다. 「폴리포니 클럽: 바람에 피와 살을 입히기」Polyphony Club: Put Flesh and Blood on the Wind」는 자연 속 미시적 세계에 대한 탐구를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개념적 시각의 투영물로 물질성과 비물질성 사이를 오간다. 이는 현대인들의 단절된 자연 경험을 몸과 감각으로 재연결하려는 다층적인 경험을 의도하는 듯하다.

하이너 괴벨스, 물고기는 땅 위에서 걷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영상 설치, 6채널 영상, 컬러, 6채널 서라운드 사운드, 프로젝터, 스피커, 10인치 모니터, 폴리에틸렌 시트 등, 20분, 가변크기, 2025, 부산현대미술관 지원으로 제작



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새롭게 제작되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폐허가 된 자연의 변화 과정을 시각화하고, 물고기가 살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대한 경고를 알린다. 동시에 현 시점의 인류에 의해 생태적 재앙이 오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드러냄으로, 성찰적 의미의 메시지 전달이 강하게 다가온다. 이질적이고 불편함을 주는 영상과 공간을 가득 채우는 음향은 현악기 소리와 콜롬비아 원주민 공동체의 구술 기록이다. 인류의 역사 속 반복되는 유실과 복원의 가변적이고 모순적인 상황을 환기하고, 관찰자적 시각의 분석은 현대 문물로 인한 현실의 지독히 망가진 모습의 독특한 정원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관객은 자신만의 사색을 경험할 수 있는 정동과 보편적 문제의 재인식을 통해 현실로의 재확장을 느끼게 된다.

김익명-공간과 소리를 통한 자연·생태의 매체적 접근

마지막 공간에 설치된 김익명 작가의 「깊은 곳」은 을숙도 주변을 흐르는 낙동강에서 직접 채집한 수중 음향을 소재로, 을숙도의 역사, 지형적 의미를 소리로써 탐구하여 일상 환경에서 들을 수 없는 비가청 영역의 요소를 일반인이 들을 수 있는 저음 역대 소리와 진동으로 변환하여 전시장에 구현한 것이다. 공간 속 들리는 울림은 마치 태아의 심장 소리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수중에 들어온 듯한 간접 체험을 선사한다. 특히 입구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집 모양의 나무 구조물은 안쪽에서 관람객이 직접 당기거나 만져볼 수 있게 레버와 점자판을 설치하고, 외부의 진동을 전달하는 모터와 팬은 관객에게 신체 감각기관을 동시에 자극한다. 작품을 통해 연계적 교감 방식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적용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는 숨겨진 이야기를 몸으로 느끼게 하는 동시에 인간과 환경에 대한 소통을 청각적으로 탐구하게 한다. 주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나 지시적 표현 없이 개인의 인식된 감정과 기억에 점차 잠식하며 스며든다.

인간중심 사유의 전환과 계기

본 전시는 큰 틀에서 보자면 철학가이자 생태 이론가 티머시 모턴(Timothy Morton, 1968-)의 이론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 속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의 한계를 성찰하며,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탐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다윈 예술이 가진 기술적 측면과 개념의 사유적 표현 방식의 확장이 향후 예술로서의 가능성과 인류의 삶의 가치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전환적 계기로 유도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한다. 대청과 비대청성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과거와 현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다시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김익명, 깊은 곳: 따개비 노래

사운드 설치, 사운드(모노), 을숙도 근처 수중 인프라 사운드, 마호가니 나무, 전자기기, 3D 프린팅, 120×25×30cm, 2025, 부산현대미술관 지원으로 제작

1 미국 출신의 수필가, 시인, 철학자, 과학자, 측량사, 사회운동가. 생태주의의 효시로 일컬어진다.

2 영화, 책, CD, DVD, 소프트웨어, 비디오 게임 등에 숨겨진 메시지에 기능.

부산의 도심 파편화와 통합성

신병윤 동의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19일 부산시의 부산진역에서 부산역 사이 구간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부산진역에서 부산역 사이 구간 2.8km를 인공지반(테크)으로 덮는 사업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부산의 경우는 철도 지하화 사업이 아니라 선상인공지반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특별법에 근거하여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도 주변 부지를 통합하여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게 되어있습니다. 부산진역 컨테이너 야적장(CY)과 철도 부지를 이전하면서 고밀도 개발로 이 일대를 북향 2단계 재개발과 연계하여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려 합니다. 동시에 철도로 인하여 갈라진 원도심을 동서로 연결하여 통합공간을 건설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이번 부산의 철도 위 인공지반 조성사업을 계기로 도시공간 부산 도심의 파편화와 통합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산은 지리적, 역사적 그리고 사회적 이유로 너무나 많이 단절되어 있으며 파편화된 도시공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구조는 부산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부정적인 결과물입니다. 부산 도심의 단절과 파편화는 부산의 도시구조를 왜곡시키며 불편한 구조를 고착시켜 왔습니다. 부산시와 부산의 도시구조를 발전시키는 데에 관계하고 있는 많은 전문가와 시민사회는 이러한 불편한 구조를 극복하며 통합적인 부산을 만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부산이 갖는 지리적 특징과 역사적 상황 그리고 사회적 현상에 따른 도심의 단절과 파편화는 오랜 세월을 거치며 통합을 위한 구조로 서서히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리적 특징으로 인한 부산의 단절감은 가장 근원적인 것입니다. 부산은 동측과 남측으로는 바다가 있고 서측으로는 낙동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엄광산, 구봉산, 승학산, 금정산, 황령산, 백양산 등과 같은 많은 산이 있습니다. 이들 산 때문에 부산의 평지는 산과 산 사이의 좁은 통로 정도가 거의 전부입니다. 산과 바다가 면하는 부분에는 평지가 거의 없어서 여러 차례 매립을 통하여 건축이 가능한 평지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징 때문에 부산은 유럽의 오래된 도시처럼 도심을 중앙에 두고 주변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도시를 감싸는 환원형의 도로구조를 가진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부산은 동래에서 송도까지 이어지는 중앙대로를 중심으로 매립의 역사와 더불어 선형으로 해안가를 따라서 독특한 도시의 모습을 갖추며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선형도시의 모습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며 더 거대한 메트로폴리탄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환원형의 교통체계를 갖춘 도시구조로 만들어 가는 노력을 지속해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산과 산 사이의 평지에 만들어진 각각의 길은 어딘가에서는 만나서 다른 방향으로 연결되는 길과 만나도록 한 곳이 교차로입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이유로 부산에는 다른 도시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교차로가 많습니다. 부산 인근의 진해 중원로타리 창원의 시청로타리 울산의 공업탐로타리와 같이 넓은 평지에 인위적으로 조성된 대형교차로와 부산의 17개에 이르는 주요 교차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들 교차로는 부산의 도심과 부심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인근 생활권의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부산은 오랫동안 바다, 강, 산을 품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각 지역의 연결성이 약한 파편적 형태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부산시 순환도로망 구축, 부산시, 2022

부산시는 오랫동안 이러한 단절되고 파편화된 도시를 통합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일부 부산·울산·경남권까지 아우르는 통합형 교통체계 구축을 수립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내부순환도로, 외부순환도로, 광역순환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와 같은 4종의 순환형의 환형고리와 같은 교통망을 점차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로써 부산은 유럽의 오래된 대도시와 같이 도심을 중심에 둔 메가폴리스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중입니다. 산과 산 사이의 길이 뻗어나가면서 바다를 만나면 다리로 연결하고 산을 만나면 터널을 뚫어서 산 너머 반대편 길과 연결하고 하면서 부산의 도시구조는 차츰 초기의 해안가를 낀 선형의 도시에서 탈피하여 거대한 환원형의 메가폴리스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탈바꿈 과정에서 부산은 바다를 가로지르는 남항대교, 부산항대교, 광안대교와 낙동강, 수영강, 온천천 등과 같은 하천을 가로지르는 교각 그리고 산을 뚫고 관통하는 터널, 대심도 터널과 같은 동서를 연결하기 위한 지하 깊은 터널과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건설되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교통목적의 영주터널과 센텀과 만덕을 잇는 대심도터널, 그리고 기장에서

사상을 잇는 대심도 터널과 같은 거대한 지하고속도로 공사가 부산에서 먼저 시작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들은 도시개발 과정에서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며 통합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부산은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도심의 단절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아마 역사적으로 부산 최초의 도심단절은 왜관의 설치일 것 같습니다. 특히 1678년 숙종 때부터 1876년 개항 때까지 198년간 있었던 초량왜관은 일본인 5백여 명이 용두산을 가운데 두고서 그 일대에 외부와 경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담장을 쌓았습니다. 왜관의 내·외부로 극단적 단절의 영역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개항과 더불어 이 일대는 일본인 거류지로서 일본인들이 세력을 형성하여 조선인들의 거주지와는 구별되는 일본인들의 중심 공간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접어들어서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연결하는 부관연락선은 일본인들의 대륙 진출을 위한 경부선과 일본 본토를 연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1905년 9월 15일에 첫 승객 300명이 제1부두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일제는 1904년 12월 27일 경부선 철도를 완공하면서 부산역사를 매립지인 제1부두 근처에 건설하였으며 내륙의 물류를 일본으로 옮기거나 일본의 것들을 내륙으로 옮기는 데에 유리하도록 부관연락선과 경부선철도의 연결을 꾀하였습니다.



부산항시지도, 부산영화체협박물관, 1903

일제강점기의 이러한 경부선은 부산의 도심이 중구 일대였을 때는 큰 문제로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부산이 계속 팽창해 나가면서 바닷가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는 철로는 도시를 단절시키는 큰 요소로 부각되었습니다. 철로뿐만 아니라 철도차량들의 정비를 위한 거대한 정비단들과 역사들이 도심 곳곳에 들어와 있으면서 부산의 도심은 이들로 인한 파편화와 단절이 더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철도에 의한 기형적 도시의 단절과 파편화를 연결과 통합의 도심으로 바꾸기 위하

여 부산시는 부산역과 부산진역 사이의 철로 위에 거대한 데크를 만들어서 철로로 인하여 단절된 중앙로의 도심과 북향을 잇는 통합적 공간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가야역에서 구포역 사이의 기존 경부선은 폐쇄하여 공원으로 만들어서 단절된 도시를 통합하는 것뿐만 아니

라 철로 주변의 낙후된 주거공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함께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경부선 철도를 대신하는 새 철도는 가야차량기지에서 도심을 단절시키지 않도록 지하화하여 새롭게 조성될 화명역까지 이어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부선철도 지하화계획, 부산시, 2022

부산의 도심은 철도로 인하여 그 구조가 단절된 측면이 강하지만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 또한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최근 발표된 부산도시철도 부산항선 추진의 발표는 철도가 단절의 요소가 아니라 통합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성대에서 태종대에 이르는 해안가를 따라서 24.2km가 달아는 트램의 도입은 부산 도심을 동에서 서로 연결할 뿐만 아니라 산업화 과정에서 물류에 빼앗겼던 해안가 공간을 사람들이 접근하여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통합시키는 데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부산의 도심은 철도의 건설로 인한 단절과 더불어 부산항이 무역항으로서 성장하면서 해안가가 도심으로부터 단절된 것이 큰 특징입니다. 바다와 단절된 부산을 바다와 통합된 부산으로 만들기 위하여 부산항의 화물기능을 모두 부산신항으로 이전하고 친수공간으로 재개발할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미 제1단계 사업은 매립을 끝내고 각종 건축이 한창 진행 중이며 제2단계 사업의 계획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영도 해안가 일대와 동항 일대까지 최종적으로 3단계 개발계획까지 완료가 되는 날이 오면 부산항은 완전히 친수공간으로 통합된 모습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부산신항이 활성화되고 북항과 동항의 무역항 기능이 사라지고 사상과 해운대를 잇는 22.8km의 대심도고속도로가 완공되고 나면 남해제2고속지선 도로와 북항을 직접 이어주는 14km에 이르는 동서고가도로도 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심의 단절과 통합성 관점에서 동서고가로 철거와 관련해서는 다른 주장도 있습니다. 동서고가로의 기능이 없다면 철거하기보다는 그 구조물을 존치하여 공중공원으로 조성하여 도시연결과 통합의 수단으로 계획

보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아이디어이긴 합니다만 고가도로 그 자체의 거대구조물이 가지는 도시단절의 심각성과 주변 환경의 악화를 고려하면 철거가 더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북항 Grand Master Plan(안), 부산시, 2016



철도차량정비단, 경부선철로, 동서고가로에 의한 도심단절, 2024

부산이 급속히 발전하던 시기에 부산항은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수많은 근로자가 항구에 가까운 산복도로라 불리는 경사지 주거지에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항만 산업의 기능이 약화하면서 많은 근로자가 떠났습니다. 이로 인하여 산복도로 주거지의 빈집증가가 더 가속된 측면이 있습니다. 산과 바다 사이의 좁은 매립지에는 효율성을 강조하며 많은 주거 수를 넣기 위하여 초고층 아파트들이 최대의 용적률로 채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써 부산의 해안가는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부산의 도시이미지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중입니다.

사회적 현상과 요소들에 의해서 도시가 파편화되고 단절된 측면도 큰 것 같습니다. 도시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거공간의 파편화는 주거공간 상호 간의 단절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빈집이 즐비한 단독주거지, 빌라와 다세대 밀집지역, 소위 나홀로 아파트, 중소규모 단지 아파트, 대규모 단지 아파트, 해안가 초고층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의 주거공간들이 파편처럼 쪼개져서 흩어져 있습니다. 도시는 소득 수준이 다른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따라서 값비싼 초고층 아파트에서부터 산복도로의 허름한 단독주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주거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있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야만 시민들이 자신의 형편에 맞는 주거비를 감당하며 선택하여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들 다른 주거유형들 사이의 단절감이 문제입니다. 상대적으로 비싸고 좋은 대단지 초고층 아파트지역과 저층 단독주거지의 사회기반시설과 주거환경시설이 너무 큰 차이가 나면서 물리적인 단절감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 차원의 심리적 단절감도 매우 크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가 대단지화되면서 발생하는 도시공간의 질적 악화는 심각합니다. 아파트의 대단지화는 기존의 통합적 요소로 존재했던 골목을 사라지게 만들고 공적 공간을 위축시키며 아파트 둘레길을 양산하여 도시가로의 활력을 저해하고 가로의 환경을 악화시켰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내에 거주자만을 위한 각종 커뮤니티시설과 공공시설이 함께 만들어지면서 이들은 외부의 공적 공간에 갈 기회가 점점 적어지며 내부의 한정된 공적 공간만을 활성화하면서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강화합니다. 특히 외부인들의 아파트진입을 차단하는 여러 공간적 장치는 자주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외부인이 아파트단지를 가로질러서 맞은편으로 건너가기도 힘들게 단지 전체를 마치 성처럼 요새화한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결과로 부산에는 갈맷길보다도 더 많은 소위 아파트 둘레길이 있습니다. 도시공간의 통합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좋지 않은 공간구조입니다. 이러한 대단지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적 도시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중소규모의 블록 중심의 연도형 아파트로 계획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대단지아파트와 블록중심연도형 아파트 예시의 비교

오랫동안 부산은 파편화되고 단절의 도시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통합공간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해 왔습니다. 부산항의 완전한 친수공간화, 동서를 연결하기 위한 끊임없는 인프라 시설의 확충, 대단지 아파트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적공간 강화의 노력 등은 부산을 더욱 통합적인 도시구조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부산이 더욱 더 바다, 산, 강과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도시로 많은 시민이 서로에 대하여 단절감보다는 공동체 의식을 느끼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도시로 통합되어 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부산 음악인들의 열정과 클래식 깊이를 선사한 2025 부산음악대축제 <실내악의 밤>

글_정혜주 예술부산 편집기자

부산음악협회(회장 권성은)가 주최하는 '2025 부산음악대축제'가 올해부터 봄·가을로 나누던 방식을 하나로 통합해,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축제는 <신인음악회>, <실내악의 밤>, <그랜드피아노페스티벌>, <오페라 갈라콘서트> 등 4가지 파트로 구성하여 부산의 다양한 음악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큰 무대를 선사했다.

5월 14일 열린 <실내악의 밤>은 50여 명의 연주자가 참여하고 음악평론가 김윤선의 해설이 더해져 품격 있는 공연으로 꾸며졌다. 실내악은 소수의 연주자가 각각 한 파트를 맡아 연주하는 서양 고전음악의 한 장르로, 이번 무대에서는 다양한 악기와 앙상블을 선보였다.

첫 무대는 [부산현악 4중주]가 차이콥스키의 「현악 4중주 1번」을 연주해 깊은 하모니와 감동을 전했다. 고전 현악 4중주의 정통성을 추구한 이 곡은 톨스토이가 눈물을 흘리고 차이콥스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일화를 남길 정도로 사운드에서 발휘되는 일체감과 실내악의 아름다움을 보여줬다.

일본 작곡가 야기사와 사토시가 작곡한 「Capricious Winds for Flute Quartet」는 플루트 최효석(비올로), 정인, 김윤희, 장정림(알토 플루트)로 구성된 [나눔플루트앙상블]이 연주했다. '플루트 사중주를 위한 변덕스러운 바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만큼 플루트의 예민하고 민첩한 다양한 음색과 기교 그리고 밝고 생동감 넘치는 선율로 청중을 매료시켰다.

폴 쾨펠드의 「Cafe Music for Piano Trio」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한 레스토랑에서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을 연주하는 하우스 트리오를 듣고 영감을 받아 고급 디너 음악의 분위기를 담아낸 곡으로, 클래식, 재즈, 포크, 팝, 탱고, 집시음악, 브로드웨이, 하시딕 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융합한 것이 특징이다. 화려한 의상으로 시선을 사로잡으며 등장한 [BS오퍼스트리오]는 「I. Allegro」에서 재즈와 래그타임의 리듬, 스윙감, 즉흥적인 요소를, 「III. Presto」에서는 빠르고 활기찬 템포로 기교적이고 역동적인 연주를 세련된 분위기로 표현하며 클래식의 다채로운 면모를 보여줬다.

[뮤직인 색소폰 앙상블]은 멘델스존의 무언가 중에서도 연주 난이도가 높은 「Venetianisches Gondellied Op.30 No.6」를 연주해, 연주자 간의 섬세한 호흡과 조화가 돋보이며 바리톤의 안정감과 소프라노 알토의 선명한 멜로디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효산가야금 앙상블]은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유산 제8호 가야금산조(강태홍류 가야금산조) 「구전심수口傳心授」를 우리나라 전통 악기 가야금 연주와 구음으로 깊은 맛을 풀어냈다.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니라 음악의 미묘한 뉘앙스와 감정, 해석까지도 함께 전하는 한국 전통음악의 중요한 전승 방식을 구사한 구전심수는 절제된 감정과 불교적 색채, 고상하고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며 독특한 무대로 주목받았다. 이날 구음은 제36회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 종합대상(대통령상)을 받은 이문희가 맡았다.



[BS오페스트리오]

연주자의 품에 꼭 들어차 풍성한 오라를 풍기며 등장한 로우 앙상블 단체 [유투EuTub]은 유포니움과 튜바의 앙상블을 들려줬다. 깊고 무거우며 울림이 있는 튜바와 부드럽고 따뜻한 소리를 가진 유포니움의 조화로, John Stevens가 작곡한 튜바 콰텟(4중주) 「Power」를 힘차고 박진감 넘치는 음악적 에너지와 재즈적 요소로 로우 악기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부산에서 유일하게 4대의 바이올린으로만 결성된 [포르투나 앙상블]은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를 한음 한음 한 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 테크닉으로 리드미컬한 긴장감과 격렬함을 선물했다.

독일과 러시아 유학과 출신의 전문 연주자들이 모인 [TDC앙상블]은 유머러스하면서도 그로테스크한 「Danse Macabre Op.40」을 들려주며 밤의 풍경을 음악으로 그려냈다. 20세기 프랑스 실내악 레퍼토리 중 가장 인기 있고 활기찬 작품 중 하나인 「sextet for piano and wind quintet in C Major, FP 100」을 피아노와 관악 5중주로 유쾌하고 다채로운 연주로 감상하고, 마지막은 [부산오페라 앙상블]이 무대를 장식하며 부산 젊은 연주자들의 탄탄한 실력을 증명했다.

이번 축제는 오케스트라의 일부로만 여겨졌던 악기들을 독립적인 앙상블로 구성해 실내악의 매력을 한껏 드러냈다. 2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부산시민들은 지역 음악인들의 열정과 부산클래식의 깊이를 체험했다. 오는 6월 개관을 앞둔 부산콘서트홀에 부산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좋은 음악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은 우수한 공연장도 필요하지만, 부산음악계를 형성하고 있는 음악인들을 향한 관심도 중요하다. 신인 연주자부터 부산을 대표하는 클래식 단체, 70인의 피아니스트와 오페라 갈라 콘서트까지 부산의 음악을 한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부산음악대축제가 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길 기대한다.



[부산오페라 앙상블]

건축과 서예XII

붓으로 새긴 충절의 기록

임진동래의충과 한형식



임진동래의충_부산시 기념물
© 구주환 사진

동래유림과 동래기영회의 향사 전통

부산 동래 지역의 향사나 제례를 주관해 온 두 축은 동래유림과 동래기영회였다. 동래향교와 충렬사, 안락서원의 향사는 동래유림이 주축이 된 부산유도회가 주관하였고, 임진동래의충과 송공단, 그리고 현재 사라진 관황묘, 거사단, 영보단 등의 제례는 동래기영회가 담당하였다. 이 가운데 1978년 충렬사의 대규모 정화공사 이전에는 동래의 가장 큰 제향은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봉행한 송공단 제례였다.

동래기영회는 1846년(헌종 12) 3월 동래부에 거주하던 50세 이상의 노인 40명이 동래 학소대(鶴巢臺) 아래 윤언서(尹彦瑞) 집에 모여 결성한 친목시회인 기영계(耆英契)에서 출발하였다. 이후 퇴임 이서(吏胥)들이 이임(吏任)과 무임(武任)이 대거 참여하여 조직이 확대되었고, 1876년(고종 13)에는 '내산(萊山)기영회'로 개칭되며 지역 대표 단체로 자리잡았다. 1883년(고종 20)과 1897년(광무 1)에는 동래부사가 직접 입회하여 위상을 더했고, 제향뿐 아니라 지역문화와 향촌 유대를 지탱하는 핵심 조직으로 기능했다. 동래유림의 향사는 형식성과 법도를 강조한 반면, 동래기영회의 송공단 제례는 공동체적 축제이자 민중의 기억행위였다. 그러나 1978년 충렬사의 성역화로 임진전란 순국선열 추모의 중심이 동래유림이 관장하는 충렬사로 옮겨가자, 동래 기영회는 시대정신에 부응하여 임진동래의충의 성역화를 부산시에 청원하게 되었다.

임진동래의충 성역화와 명칭의 유래

임진동래의충은 본래 1972년 부산시 기념물로 지정될 당시 임진전망유해지총(任辰戰亡遺骸之塚)이란 명칭을 사용하였다. 그 기원은 1731년(영조 7) 동래부사 정언섭(鄭彦燮)이 동래읍성을 수축할 당시, 동래성 남문터 인근 격전지에서 발굴된 다수의 유해와 부러진 칼, 화살 등이 발굴되었기 때문이다. 이 유골은 삼성대 서쪽 구릉지에 6기의 무덤(목총묘)으로 안장되었고, 1788년 다시 발견된 유해는 따로 분묘를 만들어서 칠총묘라 하였다. 일제강점기 토지개간 등으로 묘역이 훼손되며 유해는 복천동 영보단(永報壇) 부근으로 이장되었고, 1974년 부산시의 정화작업에 따라 금강공원 내로 최종 안장하였다. 1976~1977년, 1981년, 1986~1987년, 1991~1992년 등 수차례에 걸쳐 재실 보수, 삼문 보수, 정문 신축, 입구 비석 정비, 동래부사 선정비 이전을 정비하여, 현재는 봉분을 단일화하고 한식 담장과 외삼문, 제실 등을 갖추었다. 매년 음력 4월 15일, 임진전란 당시 순절한 이들을 기리는 제향이 봉행되고 있다. 동래기영회는 비록 의병은 아니지만 전쟁에 희생한 분들이라 하여, 이 유적의 성격을 고려한 '임진동래의충'으로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고 금산의 칠백의충에 버금하는 대규모의 성역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금강공원의 기존 시설물이 많고 경역이 좁아 충렬사보다 크게 확장하는 조성은 무산되었다.

한형석이 쓴 임진동래의충·충훈각의 현판과 주련

이 시기에 한형석(韓亨錫(일명 한유한韓悠韓, 1910-1996)은 임진동래의충과 충훈각의 현판 주련을 집필하였다. 광복군 제2지대 선전대장 출신으로 항일운동에 헌신했으며, 1973년 광복회 부산지회장을 역임했던 그는 글씨뿐만 아니라 역사 유적 조성과 기획에도 깊이 관여하였다. 더욱이 그의 부친 한흥교(韓興敎(1885-1967)는 동래 기영회 회원이었고, 친형 한원석은 동래기영회장을 오랫동안 역임했기에 임진동래의충과 충훈각 현판 글씨의 집필은 혈통과 정신의 계승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임진동래의충_한형석



충훈각_한형석

충훈각 주련

향각충전재 香閣塚前在 / 충훈래격의 忠魂來格依

추풍유대비 秋風猶帶悲 / 순국성인절 殉國成仁節

제실이 무덤 앞에 있으니,
충성스러운 혼령들이 와서 의탁하여 자리 잡았구나
가을바람은 비통함으로 무덤을 감싸는데,
나라를 위해 죽음으로 어진 절개를 이루었도다.

애국충정과 서정성이 깃든 한형석의 먼구름체

호 '먼구름'으로 잘 알려진 한형석은 독립운동가 한흥교의 차남으로, 중국에서 유년 시절과 학업을 보냈다. 육영育英소학교, 노하潞河고등중학교, 신화新華예술전문학교를 거치며 문예와 서예, 음악 등 예술 전반에 깊은 조예를 쌓았고, 이후 귀국해 부산대학교 중어중문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한형석은 일제강점기 한국광복군에서 활동하며 『광복군가집』을 엮고, 「한국행진곡」, 「항전가곡」, 「암록강 행진곡」, 「조국행진곡」 등 다수의 항일음악과 오페라인 〈국경의 밤〉, 〈아리랑〉 등을 공연 기획한 음악가이자 연출가였다. 1953년 한국자유아동극장을 창립 운영했고,



충훈각 주련_한형석



동래부 동헌 충신당_한형석



임시수도기념관 사빈당忠信堂_한형석, 남정구 전각, 1984년



다대침사 윤흥신 장군상_한형석, 1981년



대동병원_한형석
한형석의 부친인 독립운동가이자 의사였던 한흥교는 귀국 후 대동병원의 모태가 된 대동위원을 개원했다.



민주공원 충혼탑 비문_한형석, 1982-83년

가면극의 새로운 시도로 1969년 탈극 〈순절도〉

대본을 창작하기도 한다. 실로 다재다능하여 예술적 감각의 진폭은 이루 평가하기 어렵다.

여기에 중국 생활에서 옹방강, 등석여 등 청나라 말기의 중국 서예에 안목을 넓히어 심미안이 대단히 높았다. 글자의 파자(破字)와 결구(結構)로 글씨의 해체와 재조합을 통해 독창적인 필법을 완성하였고, 이를 사람들은 ‘면구름체’라 불렀다.

철기 이범석 장군은 이를 가리켜 ‘이채롭고 기수(奇秀)한 필법’이라 극찬하였다. 남아 전하는 그의 글씨들은 애국정신의 시각화이다.

금강공원 임진동래의총 및 충훈각 현판과 주련을 비롯하여, 동래부 동헌 충신당(忠信堂) 현판,

임시수도기념관 사빈당(思賓堂) 현판, 민주공원 충훈탑 비문, 다대침사 윤흥신 장군상 및 건립문과 사적기,

부산대학교 캠퍼스의 이문회우(以文會友), 좌수영 선소유허비, 가덕도 국군용사 추모비, 이은상의 ‘낙동강’ 시비, 대동병원 글씨 등이 부산 전역에 전한다.

민주공원에 위치한 광복회 부산지부 사무실에서도 〈헌신조국(獻身祖國)〉이란 서예작품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그는 1971년 부산 광복동 보리수 다방에서 ‘충무공 추모 서예전’, 1972년 경남 충무시와 서울 국립공보관에서 이충무공 탄신 제427주년 기념 ‘충무공 추모 서예전’을 개최한 적도 있다.

한형석의 서예와 현판 주련은 그 주제와 형식, 필획의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애국충정으로 귀결된다. 나라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그의 삶, 예술을 통해 구국을 추구한 시대정신, 그리고 무부(武夫)로서의 용맹과 결기, 역사를 향한 깊은 책임 의식이 그의 글씨마다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그의 서체는 혼과 신념이 응축된 정신력의 상징이자 붓으로 새긴 충절의 기록이라 할 만하다.

글_이현주 부산시 국가유산위원

대한민국 최고의 도심공원, **‘부산시민공원’**의 가치에 주목한다



330만 부산 시민이 함께 삶을 영위해야 꼭 필요한 공간이 도시공원입니다. 도시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하는 공원입니다. 도시지역에서 도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식 및 정서 생활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이죠. 법률과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지어졌으니 당연히 이들 공원은 부산시 예산으로 관리 운영됩니다. 부산시 자료에 따르면 도시 공원은 ‘생활권 공원’과 ‘주제공원’으로 나뉩니다.

우선 생활권 공원으로는 으뜸소공원을 비롯한 300여 곳의 '소공원'이 있고, 어린이 보건과 정서 함양을 위한 꿈동산어린이공원 등 400여 곳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또 용두산공원과 어린이대공원 등 지역생활권 거주자들을 위한 150여 곳의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주제공원으로는 북천동 고분공원과 충렬사공원 등 '역사공원'이, 가야감개공원과 해운대역사 문화공원 등 도시민의 휴식과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된 '문화공원'이 있으며, 이기대공원과 다대포 해변공원 등 도시의 하천가와 호숫가를 활용한 '수변공원'도 있습니다. 이밖에 유엔모지공원과 부산추모공원 등 '묘지공원'과 신평레프츠공원과 거제공원 등 '체육공원', 철마 도시농업공원과 강서 도시농업공원 등 '도시농업공원', '방재공원' 등이 있습니다. 필자는 부산의 여러 도시공원 중에서 세계적인 규모로 조성된 부산시민공원(부산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73)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최대 도심으로 사통팔달인 서면과 인접한 부산진구 범전동과 연지동 일원에 조성된 근린공원인 부산시민공원은 2014년 5월 1일 정식 개장되었습니다.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된 세계적인 공원 설계자 '필드 오프레이션스' 대표인 제임스 코너James Corner가 설계를 맡았고, 9년에 걸쳐 6,494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공원의 설계 기본 주제는 '얼루비움Alluvium(퇴적층)'으로, 물결무늬의 공원을 통해 부산의 역동성을 담아내려고 했습니다. 이는 옛 하야리아 부지가 지질학적으로 퇴적층이라는 점을 추상적으로 해석했다고 합니다. 얼루비움을 통해 흐름·연결·쌓임을 기반으로 공간을 구상해 기억Memory - 문화Culture - 즐거움Pleasure - 자연Nature - 참여Participation 등 5개 테마 숲길에 조성되었으며, 5개 숲길 주변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공공 경관 개념으로 조성된 이 공원의 전체면적은 무려 473,911㎡에 달합니다. 공원 내에는 97종 85만여 그루의 나무가 심어져 있고, 발길이 닿는 곳마다 온갖 화초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수령 50년, 100년이 훨씬 넘는 고목·거목들도 공원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서울 외곽인 서초구 양재동 양재천 주변에 있는 시립공원인 양재시민의숲(1986년 11월 개장·2022년 10월 13일 매현시민의숲으로 명칭 변경)은 서울 시민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숲의 크기는 17만 8,635㎡에 불과합니다. 또 2005년 개장한 서울숲(서울 성동구 독성로)의 규모는 48만 994㎡로, 부산시민공원의 크기와 비슷합니다. 따라서 부산시민공원은 도심공원으로는 규모 면에서 한국 최대이며, 세계 유명 도시에 조성된 도심공원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공원 중앙에 있는 축구장 6배 규모인 하야리아 잔디광장(40,000㎡)에는 늘 가족 단위의 시민들로 붐빕니다. 공원 내에는 공원역사관, 공원안내소, 분수(4곳), 광장(6곳), 어린이 놀이시설(9곳), 카페(3곳), 편의점(2곳), 화장실(22곳)과 벤치 등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세계적인 도시공원 하면 미국 뉴욕의 센트럴 파크Central Park와 영국 런던의 하이드 파크Hyde Park, 일본 도쿄의 우에노 은사공원Ueno Park·上野恩賜公園을 떠올립니다. 1857년 문을 연 뉴욕 센트럴 파크는 면적이 무려 843에이커(341만㎡)로 독립국가인 모나코보다 더 크고 부산시민공원의 7.23배에 달합니다. 거대한 녹지로 조성된 이 공원은 설계자 프레더릭 로 옴스테드Frederick Law Olmsted의 '도심에서 최단 시간 탈출'이라는 설계 철학에 걸맞게 뉴욕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 공간입니다. 영화나 TV 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원설계의 표본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연간 2,500만 명이 넘는 외국 관광객이 찾을 정도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습지였던 이곳에 거대한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엄청난 반발이 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원 설계자 움스테드는 이렇게 반박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곳에 공원을 만들지 않는다면 100년 후에는 이만한 크기의 정신병원이 필요할 것이다”라고요. 삭막한 고층빌딩이 아닌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뉴욕 시민들에게 정신적 안정을 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죠.

영국 런던 중심부의 런던 왕립 공원의 일부인 하이드 파크의 면적은 142만㎡로, 뉴욕 센트럴 파크엔 미치지 못합니다. 원래는 웨스트민스터 수도원 장원^{Manor of Hyde}이었으나 1536년 헨리 8세에 의해 왕실의 사냥터로 바뀌었고, 1631년 제임스 1세에 의해 대중에게 완전히 개방되었습니다. 지금의 하이드 파크는 조지 2세의 배우자 안스바흐의 카롤리네에 의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하이드 파크는 도시공원을 넘어 공연장으로서 역할도 톡톡히 합니다. 1969년 7월에 록밴드 롤링 스톤스가 한 멤버의 사망을 추모하는 자선공연을 개최했고, 2015년부터는 6월엔 2주간 영국 최대 규모의 음악축제인 ‘브리티시 서머타임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일본 수도인 도쿄에는 1873년 개원한 최초의 도시공원인 우에노 은사공원이 있는데, 그 면적은 538,506㎡에 달합니다. 이 공원은 일본 황실 소유였으나 1924년 다이쇼 천황이 공원 관리 차원에서 도쿄시에 하사했다고 합니다. 에도시대부터 벚꽃 명소로 유명했던 이곳에는 도쿄국립박물관, 국립과학박물관, 국립서양박물관 등 여러 박물관이 들어서 있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부산시설공단이 관리 운영하는 부산시민공원은 ‘100년의 기다림, 영원한 만남’으로 표방될 정도로 근현대 한국사가 얹혀 있는 역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이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하야리아^{Camp Hialeah} 소재지여서 ‘하야리아 공원’이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료

에 따르면 부산시민공원의 원래 주소는 경상남도 부산부서면 범전동(경상남도 동래군 서면 범전리)으로, 일대가 비옥한 농지였습니다. 그러나 1910년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토지 조사 사업을 명분으로 강제로 땅을 빼앗았고, 1920년대에 부산진과 서면이 공업지구로 지정되면서 공장이 난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1930년에는 서면 경마장이 조성되었고, 1937년 중일전쟁이 터지자 일제는 서면 경마장을 군사기지로 이용하다 제2차 세계 대전 때는 포로수용소로도 활용했습니다. 그러다 일본군의 항복을 받기 위해 부산에 상륙한 미군이 접수, 기지로 사용하는 곡절을 겪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캠프 하야리아^{Camp Hialeah}로 불렸는데, 이는 부산에 상륙한 한 해군 요원이 자신의 고향인 플로리다주 ‘하이얼리어^{Hialeah}’에 있는 유명 경마장에서 착안, 명명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 1946년부터 주한 미국 부산 총영사관과 UN 기구로 쓰이다가 1950년 6.25 전쟁 발발 이후 다시 미군이 지휘권을 가져갔고, 40여 년 동안 주한미군 부산사령부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와 부산 시민들은 1995년부터 부산지역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하야리아 기지 반환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고, 결국 2002년 주한 미군과의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수정 협상 이후 2006년에 미군기지 반환 결정이 난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시는 미군이 철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과감하게 부대 토지를 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부산시는 2010년 1월 27일 미군 기지를 정식으로 반환받았지만, 미군들이 마구 버린 폐유 등으로 오염된 토양을 처리하는 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했습니다. 숯한 곡절을 겪은 끝에 2011년 8월 11일 기공식을 개최했고, 2014년 5월 1일 정식으로 개장한 뒤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이 기지

는 도심에 위치 한데다 지형도 평평해서 부산시가 개발비용을 챙기는데 욕심을 냈더라면 십중팔구 삭막한 대단지 아파트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전국의 1군, 2군, 3군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군침을 흘리며 떼 지어 몰려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부산시정 책임자들은 그런 유혹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통찰력을 발휘해 눈앞, 코앞의 '작은 이익'을 배척하고 대신 부산 시민 자손손에게 멋들어진 '광활한 쉼터'를 제공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필자를 포함해 부산시민공원을 찾는 모든 시민은 당시 부산시정 책임자들의 '혜안'에 존경의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나무는 세월을 먹고 자랍니다. 개장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공원 내 온갖 수목들의 가지는 훨씬 더 뻗어나가 장관을 자랑합니다. 앞으로 또 10년, 20년, 50년, 100년 이후의 공원 수목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변화된 모습을 상상만 해도 신납니다. 아파트는 50년, 100년이 지나면 노후화로 흉물이 되어 버립니다. 또 어떻게 헐 것인가를 걱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원 내 나무는 그 세월만큼 더 무성해져서 공원의 가치를 한껏 더 끌어올려 줄 것입니다.

부산시민공원의 가치는 벌써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높은 '블럭 담장' 위의 철조망 속에 가려진 폐쇄의 공간, 비밀의 공간인 미군 군사기지 가까이에서 살아야 했던 지역 주민들은 줄지에 '거대한 정원'을 선물 받은 셈이 되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사통팔달로 배치된 공원 문을 통해 언제든지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거대한 '앞뜰'이나 '뒤뜰'을 확보했으니까요. 주택업자들도 도심공원의 장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부산시민공원 주변에는 초고층 아파트가 줄지어 들어서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공원을 '정원'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원

주변의 허름한 주택들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해요. 공원 덕을 톡톡히 본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장땀'을 마련해 놓았으니 더 많은 사람이 찾게 해야죠. 그러려면 우선 공원 내 여유 공간을 적극 활용, 작은 연주회나 전시회 등을 열어서 이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볼거리, 즐길 거리로 제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볼썽 찾았더니 볼만한 공연을 하네? 멋진 전시를 하네?"라는 인식부터 갖도록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선 부산시 문화 당국이 체계적인 관리능력을 발휘, 부산시민공원을 부산의 대표적인 야외 공연 및 전시 명소로 굳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 부산에서 각종 국제회의나 학술회의 등 큰 행사가 열릴 때 반드시 외지인들이 부산시민공원 방문 스케줄을 잡게 함으로써 공원의 홍보 효과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부산시민공원 정도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도심공원입니다. 부산시민공원이 해운대해수욕장이나 광안리해수욕장 못지않은 부산의 대표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06년쯤인가 필자가 서울의 '서울의숲'을 방문하고 굉장히 부러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 부산에는 '서울의숲'과 맞먹는 규모에다 훨씬 잘 가꾸어진 부산시민공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산시민공원 내에는 부산 최초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 '부산콘서트홀'이 2025년 6월 20일 개장합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에다 대한민국 최대의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되고, 2,011석의 대공연장과 400석 규모의 소공연장 등을 갖췄습니다. 꽃과 나무, 싱그러운 공기,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부산시민공원의 가치는 연륜을 더할수록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래서일까. 부산시민공원이 얼마 안 가 세계적인 명소 반열에 오를 것 같다는 예감이 드는 것은 왜죠?

글_심수화 언론인, 칼럼니스트

2025 부산시 문화경청 시각예술(미술) 분야 간담회 개최

5. 9.(금) 오후 2시 금련산갤러리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문화경청 프로그램'의 시각예술(미술) 분야 간담회가 5월 9일 오후 2시, 금련산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에는 부산시 조유장 문화국장, BDI 김민경 박사를 포함해 시 관계자 13명, 부산비엔날레 박순곤 부집행위원장 및 관계자 5명, 부산미술협회 최장락 이사장과 사무국장, 소속 작가 8명, 독립기획자 서상호, 작가 정혜련과 손몽주 등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행 ▶지역 작가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과 지역 대학의 역할 ▶부산비엔날레의 글로벌 역할 및 시민과의 소통 방안 ▶미술문화의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전시문화의 활성화와 작가 간 소통 강화 ▶부산문화재단의 역할과 적극적인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자유토론에서는 ▶청년작가와 중장년 작가 간 균형 있는 창작 지원 확대 ▶폐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작 및 전시공간 확보 ▶문화예술인 지원금의 안정성과 투명성 제고 ▶전시시간 유연화를 통한 시민 향유 기회 확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교육 강화 ▶부산비엔날레의 지역성과 세계성 간의 균형 유지 등 현실적이고 밀도 높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 외에도 부산아트 페어 예산 축소에 대한 우려와 공공보조금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부산시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고유 지역자원 발굴·지원·활용을 통한 지역문화 특성화 ▶지역 내 문화 복지 및 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역 내·외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 발전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문 예술인, 생활예술인, 문화기관을 포함한 거버넌스 체계 정비 등의 방향으로 제3차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각예술 분야의 2025년 예산안도 함께 공유됐다. 바다미술제, 금련산갤러리 지원, 인사동 부산갤러리 운영 등이 신규 또는 확대 편성되었으며, 부산문화재단을 통한 문화예술지원사업 예산은 85억 원으로 증액, 예술기획 및 국제교류 사업 등이 중점 추진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총 9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를 통해 문화예술계 및 시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술인 중심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부산 지역문화의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문화도시 도약을 위한 '문화경청 프로그램'은 오는 6월까지 진행된다.

제4회 부산문인의 날 및 부산문인협회 제63주년 기념식

4. 19.(토) 오후 2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부산문인협회(이사장 박혜숙)는 지난 4월 19일 오후 2시 부산예술회관에서 '제4회 부산문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협회 창립 63주년을 기념하며 부산 문학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문인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자리로, 회원 300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수상자로는 (사)한국문인협회장상에 김달현(시)과 김영호(아동문학)가,

부산시회의의장상에는 박만순(시)과 서경남(시)이 선정됐다.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장은 권미숙(시), 김새록(수필)이, (사)부산광역시문인협회장상에는 김정숙(시), 최인숙(시)이, 공로상은 김정홍(시), 주희령(시)이 수상했다.



제14회 젊음의 축제 '이그나이트:IGNITE'

7. 5.(토) ~ 6.(일) 오후 2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오수연)가 주최하는 제14회 젊음의 축제가 7월 5일부터 이틀간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젊음의 축제는 만 19에서 39세 이하 부산 청년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하며,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예술 무대를 제공하고 예술을 통해 서로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올해 축제는 '점화되다'라는 의미를 담은 '이그나이트:IGNITE'를 주제로 진행된다. 7월 5일 예선을 시작으로, 6일에는 최종 본선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대상 1팀(명)에는 상금 300만 원, 금상 2팀(명) 상금 200만 원, 은상 3팀(명) 상금 100만 원, 동상 6팀(명) 50만 원, 참가상 10팀(명) 30만 원과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장 상장이 수여된다. 수상팀에게는 부산예총 기획공연 및 차년도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 참여할 기회도 제공된다. 행사에는 소프라노 고은솔과 부산예술회관 합창단의 축하 무대도 마련됐다. 경연 종목은 국악, 무용, 연극, 연예, 음악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며, 참가신청은 6월 22일 오후 6시까지 접수받는다.

문의 070-7747-0396



2025 부산예총 부산예술인<행복플랫폼> 퍼실리테이터 운영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예술인 복지서비스 안내

부산문화재단 부산예술인복지센터는 올해에도 '2025년도 부산예술인<행복플랫폼>'을 운영한다. '행복플랫폼'은 행(정)복(지)플랫폼의 준말로, 예술인들의 복지 지원 관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산 주요 예술기관과 협력을 통해 퍼실리테이터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행정 업무 관련 진행이 어려운 지역 예술인을 대상 1:1 맞춤형 서비스로, 지난 2022년부터 운영해 왔다. 올해에는 부산예총(남구_070-7747-0401)과 부산민예총(연제구_051-503-0493)을 행복플랫폼 거점 공간으로 조성, 각 1명의 퍼실리테이터를 파견하고 활동 중이다. 주 업무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창작준비금신청 등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예술인복지사업 안내 및 홍보 등도 맡는다. 복지 관련 온라인 등록 및 자세한 안내가 필요해 방문을 원하는 예술인은 거주 지역에 맞는 행복플랫폼 협력 기관을 확인 후 대면 서비스를 받으면 된다. 기관별 업무 운영이 상이하므로, 방문 전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는 점 유의 바란다.

문의 070-7747-0401



**이자람 판소리
눈, 눈, 눈**

**6. 14.(토) ~ 15.(일) 오후 4시
영화의전당**

이자람 신작 「눈, 눈, 눈」은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주인과 하인』을 재창작한 작품이다. 원작은 1800년대 러시아를 배경으로, 마을 상인 바실리와 하인 니키타가 눈보라 속에서 길을 잃는 여정을 그리고 있다. 「눈, 눈, 눈」은 이자람의 전작들과 같이 소리꾼과 고수만 등장하지만,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넘치는 에너지와 무대 장악력으로 무대를 한순간에 가득 채운다. 전통적인 「빈 무대」의 특징을 살리면서도 빛과 색을 이용해 서사를 풍성하게 표현하기 위해 무대 디자이너 여신동이 참여하고, [양손프로젝트]의 박지혜 연출가도 함께 한다.

문의 051)780-6060



**소장품섬
최찬숙: 밋찌나**

**3. 29.(토) ~ 6. 29.(일)
부산현대미술관**

부산현대미술관은 개관 이후 수집해 온 주요 소장품을 조명하는 상설 전시 '소장품섬'의 올해 첫 기획으로 '최찬숙: 밋찌나'를 6월 29일까지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기억'과 '증언'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위안부 여성들의 경험을 재해석한 영상 설치 작품을 선보인다. '밋찌나'라는 동일한 이름을 가진 세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역사가 한 가지 진실로 고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예술을 통한 역사적 사건의 현대적 해석을 시도하는 이 전시는, 개인과 사회의 기억이 교차하는 지점을 섬세하게 조명하며, 예술의 공공성을 보여준다.

문의 051)220-7400



**동산 대종사
열반 60주년 기념 특별전
감인대도 堪忍待道**

**4. 20.(일) ~ 6. 29.(일)
범어사 성보박물관**

범어사 성보박물관에서 동산 대종사 열반 6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감인대도 堪忍待道」가 열리고 있다. 전시는 유품과 유묵을 중심으로 스님의 생애를 조명하며, 고요하고 단단했던 수행자의 길을 세 개의 주제로 풀어낸다. '수행의 길'에서는 출가와 수행 여정을, '세상의 길'에서는 정화운동과 국제 불교 교류 등 시대적 실천을, '글씨의 길'에서는 「감인대」, 「만법귀일」 등의 유묵을 통해 무언의 가르침을 되새긴다. 전시 제목인 '감인대도 堪忍待道'는 '참고 견디며 기다리는 가운데 길이 열린다'는 뜻으로, 침묵과 인내로 일관한 동산 스님의 정신을 함축한다.

문의 051)508-6139



시축일기 김광자 / 혁신기획

김광자 시인의 13번째 시집은 총 4부로 나뉘어 있으며, 자연을 주제로 한 시적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시인은 마치 대장장이가 쇠붙이를 제련하며 실력을 갈고닦듯, 오랜 세월 집중하며 시를 다듬어왔다. 그 노력의 결과물을 이 시집에서 고스란히 엿볼 수 있다. '자연이 아름다움을 흔들어/유혹하여도 감탄해 흠뻑 반할 이/없으면, 보지 못한 척하면 무명허실無名虛失/내가 너를 읽지 않고 뽐내 주지 않으면/꽃꽃인들 나를 참 시인이라 부르랴(『자연과 시인의 정의正意』 부분)'라는 시구에서 알 수 있듯, 김광자 시인은 단순히 속내를 글로 표현하는 시인이 아니다.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시로 풀어내어, 그 감동이 더 많은 사람과 공유될 수 있도록 다듬어가는 장인이다.



엄마와 헤어지는 중입니다 이강선 / 부크림

이 책은 엄마와 헤어졌거나, 지금 헤어지는 중이거나, 앞으로 헤어질 사람들에게 작가가 바치는 수필이다. 이야기는 딸이 엄마를 요양병원에 보내는 시점에서 진행된다. 부모의 품에서 자란 아이는 언젠가 어른이 되어 부모의 품을 떠난다. 나이가 든 부모가 병들고 24시간 보살핌이 필요해지면 요양병원에 보내는 과정은 많은 이들이 겪는 현실이다. 특히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한때 당신의 삶을 바쳐 우릴 돌봐 주던 부모를 이제는 우리가 돌보아야 한다는 현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보호자와 보호자의 역할이 역전되는 당혹스러움이 담겨있다. 우리 모두가 겪을 수밖에 없는 일상적이고도 가슴 시린 이야기다.



해당화 필 때 김달현 / 앤북스

간혹 시는 서정성에 매몰되어 대중에게 난해하게 다가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청계 김달현 시인은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시를 쓰기 위해 노력한다. 그는 '현실은 너무 생소하고 난해한 시보다는 대중과 쉽게 공감하는 시적 감각을 요구하는 시대'라며,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시를 쓰려는 끝없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 노력은 본문 속 시에서도 드러난다. '초여름 햇살은/쪽빛 바다 다듬고/파도는 은빛 춤춘다/돌아서 정답게 걸어가는/다대포백사장 돌레길/해당화 곱게 피어/미소 짓는다(『해당화 필 때』 부분)'처럼 다대포 돌레길의 해당화를 심오한 표현 없이, 시인만의 시선으로 그려내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시집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MECENAT & SUBSCRIPTION

부산의 예술문화를 사랑하는 당신을 메세나로 모십니다.



메세나 광장

MECENAT

『예술부산』은 메세나가 되어주신 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그동안 기반을 닦았습니다. 『예술부산』과 함께 부산의 예술 문화 발전에 앞장서는 동반자가 되어주실 메세나를 찾습니다.

메세나 광장

방 성 빈 BNK부산은행 은행장

정 은 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예술부산』을 후원해주시면

첫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1항 5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1항 5조에 의거하여 세제혜택을 드리며,

둘째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모든 문화행사에 우선적으로 초대하고,

셋째 월간으로 발간되는 『예술부산』을 보내드립니다.

정기구독

SUBSCRIPTION

월간 『예술부산』은 부산 시민과 예술문화인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서면 영광도서에서 해당 호를 구매할 수 있고(정가 5,000원) 1년 정기구독을 신청하면 50% 할인된 금액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예술부산』 정기구독 신청

전화 051)612-1372

팩스 051)631-1378 또는

이메일 artbusan1997@naver.com을 이용하여
구독신청을 하시고 **1년간 구독회비 30,000원**을
입금하시면 해당 호부터 보내드립니다.

부산은행 101-2024-8255-00

예금주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술부산』은 여러 장르에 걸친 예술문화의 향기를 더욱 많은 회원들과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술부산』 편집실 **전화** 051)612-1372 **팩스** 051)631-1378 **E-mail** artbusan1997@naver.com

월간『예술부산』

광고지면안내

What?

- 예술 관련 단체 또는 기업 광고
- 각종 행사, 공모, 전시, 공연, 신간 광고 외

Where?

· 표2 (앞표지 안쪽)	700,000 (천)
· 표2대면 (앞표지 안쪽 우측면)	700,000
· 표3대면 (뒷표지 안쪽 좌측면)	500,000
· 표3 (뒷표지 안쪽) 마감!	500,000
· 표4 (뒷표지) 마감!	1,000,000

How?

- 광고 사이즈 : 가로 200 × 세로 260mm
- 문의 : 051)612-1372 / artbusan1997@naver.com

* 1년 연속 게재 시, 또는 예총 회원 및 회원 단체인 경우 할인 적용 가능함.

“월간『예술부산』은”

1997년 창간된 **종합 예술 잡지**입니다.

부산에서 전시·공연되는 예술의 성과를 집대성하고 예술인들의 활동과 업적을 아카이브하며 부산 예술계의 수준 높은 예술문화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부산만이 아닌 **전국으로 배부**됩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및 전국 지회·지부, 언론사, 국립중앙도서관 및 부산의 도서관, 부산은행 전 지점, 부산의 주요 갤러리·공연장, 공공기관, 시·구청, 일반 정기구독자 등.

저음
박스

2025

걷다가
만나는
대스킹

in Madang

바X킹

4 ~ 9월, 매주 수요일 12:00 ~ 13:00
부산예술회관 야외광장무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역사박물관

우리 자본시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위 치 | 부산국제금융센터 (BIFC) 51층

방문 전 관람문의 (051-662-2559)

관람료는 무료이며, 토/일 ·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부산의 숨은 명소 **다대포**(아미산 전망대)

부산의 서쪽 끝에 위치한 다대포해수욕장은 드넓은 백사장과 갈대밭, 그리고 아름다운 낙조로 유명합니다. 아미산 전망대에서는 낙동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을 내려다보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느껴실 수 있습니다.

바다와 강이 만나는 자연의 콜라보, 부산

강이 끝나는 곳에서 바다가 시작되고 갈매기와 철새가 함께 나는 곳

두근두근 설레는 맘으로 기다린 끝에 맞이하게 되는

해와 강이 만들어내는 웅장한 낙조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다대포만의 풍경을 연출하죠.

부산이라 만들어 낼 수 있는 다대포라는 작품

부산을 사랑합니다

※ '부산을 사랑합니다' 광고는 BNK부산은행 직원 및 직원가족으로 구성된 홍보모델 'B-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촬영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정가 5,000원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부산은행